

민간주도 개혁 - 法治 확립하라

세월호 대참사 수습과 가야 할 길

對談

南時旭

·본회 회우 ·세종대 석좌교수

宋復

·본회 회우 ·연세대 명예교수

때: 2014년 5월 13일 곳: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엠바고룸

사회: 문명호 본회 주필 정리: 최희조 본보 편집위원

사진: 이철영 본보 편집위원

2·3면에 대담내용 지상중계



대담하고 있는 남시욱 회우(왼쪽)와 송복 회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치유책으로 거론되는 국가시스템개조를 위해 관 조직의 현장관리중심 전환, 인사채용의 분권화와 개방화, 고위직 산하단체 취업규제, 고위공직자 장기임용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대한언론인회(회장 김은구)는 5월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시욱 전 문화일보사장과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를 초청, 문명호 주필의 사회로 '세월호 참사 긴급 진단과 처방' 대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복 교수는 국가개조와 관련, 현장중심의 관 조직 개편 등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책임지기 보다는 국가개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개혁전면에 내세우느냐 하는 인사문제가 관건이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남 사장은 안전처를 신설하기에 앞서 참사전말 보고서를 만들어 이를 토대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게 순서라고 말했다. 특히 참사를 둘러싼 진단과 처방을 위한 보고서 작성이나 국가시스템 개조 작업을 관이나 정치주도에 맡기는 '셀프 개혁'으로는 안 되고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전사장과 송 교수는 근대국가를

만든 관료주도 체제에서 후퇴해 국민 유착과 부패의 제도화, 무사안일과 무책임의 '관피아'가 주도하는 '관원치국'(官員治國)이 지난 20년간 형성됐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개혁시스템개조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민족성이나 국민의식 개조는 정부나 선각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자유경쟁이 작동하는 시장사회를 발전시켜야 가능하며 관료가 이에대한 순기능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국민성 개조 이전에 공사(公私)조직의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하며 법치가 이루어지는 '가치국가'(價值國家)를 지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반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은 문제의 초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 사장은 언론이 사전에 세월호 실태를 취재해 탐사보도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과 참사 후에도 선동적이고 마구잡이식의 무책임한 보도로 오보를 남발해 참담하다는 지적을 했다.

정치와 언론은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야 하며 견인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4]

그대들 착한 영혼들이여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도하며

침묵이다, 지금은 오직 침묵뿐이다
가슴 짓누르는 고통을 이겨내기까지
우리 모두 어둠 속에 갇혀있다

착한 영혼들이여

어디론가 떠나간 그대들

젖은 발자국을 보면서

바다가 처음으로 거대한 짐승임을 알았다

소용돌이치는 허허로운 바다에

그대들을 두고 돌아선

비열한 인간들의 추악함을 보았다

돌이킬 수 없이 쓰러지는 배에서도

마지막까지 어른들을 믿으며 문자를 보냈지

<구명조끼 입고 기다리세요>

김 후 란

·본회 자문역 ·전 경향신문 문화부차장

·현 '문학의 집·서울' 이사장

<배가 많이 기울었어요. 엄마 아빠 보고싶어요>

여섯살 오빠가 구명조끼 벗어

동생에게 입혀주고 하늘나라로 가고

선생님은 구명조끼 나눠주며 격려했다

<난 괜찮다, 너희들은 꼭 살아야 한다>

절망의 순간에 친구끼리 허리끈 마주 묶고

<우리 절대로 떨어지지 말자> 부둥켜 안았다

바다는 깊고 어두웠다

꿈 많고 미래에 부풀었던

피워 보지 못한 꽃봉오리들 어쩌나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통곡으로 파도치는 눈물바다

우리 모두 고통으로 어둠에 갇혀있다

그러나 이제 비탄의 어둠을 깨고

소중한 우리 사회 다시 일어서기를

사람답게 사는 세상 가꿔가기를

그날 바다새 떠나간 그대들이여

그리움으로 물결치는 우리 가슴에

꽃으로 향기로 다시 피어나거라

그리움으로 눈물 젖은 우리 가슴에

꽃으로 향기로 다시 피어나거라

2014년 6월

■ 긴급대담 — 세월호 대참사 수습과 가야할 길

전문가 보고서 바탕 대안 마련

문명호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사회 곳곳에서 권력유착과 부정부패, 무너진 도덕관과 잘못된 가치관, 무시되는 법질서, 안전 불감증, 정치권의 직무태만 등 총체적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의식과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국가개조를 위해 먼저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남시욱 미시적으로 보면 가장 실무적인 책임자는 여객선 회사의 사장과 선장, 대주주격인 유 모씨까지 세 사람으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선장은 선장답지 않게 비겁하고 책임자의 자질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선박해운회사는 돈에만 눈이 멀고 감독관계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만, 이번 사건이 총체적 부실 때문에 발생했고 우리의 자화상이란 말에 동의합니다.

송 복 어느 나라에나 환경 다음에 대두되는 문제가 안전인데 우리에게 안전이 가장 큰 문제로 닥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해로 숨지는 사람이 통계를 보면 연간 2천4백명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이처럼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이제 어린 학생들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안전문제에 대경종을 울려주고 우리 사회의 현실과 구조를 재점검 해보는 절체절명의 계기가 됐습니다.

90년대이후 관민유착 본격화

송 복 이번 사건은 관민유착에서 발생한 것이고 관민유착의 중심에 관마피아, 관피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990년대 이래 민주화 하면서 관민유착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1960~80년대까지 관료 주도로 국가를 관리 운영하던 체제였다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관료가 아니라 관원이 나라를 움직이는 ‘관원치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관료(bureaucrat)와 관원(clerk)은 다릅니다. 독일의 사회사상가 막스 베버는 근대국가와 전근대국가의 다른 점을 관료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보았습니다. 관료는 합리적 객관적이고 효율적이며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대국가를 만들고 주도해 온 사람들로서 관료가 제대로 서있는 나라를 문명국이라 했습니다. 관료의 반대개념이 관원인데 전근대국가나 전통사회의 관리로서 원님, 벼슬아치, 아전들을 가리켰습니다. 요새는 관리라 하지 않고 관원이라고 합니다. 관원은 첫째 날마다 일상적인 일만 하고 무사안일적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적당주의로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관원치국의 대표적 현상이 관민유착, 부패의 제도화입니다. 관리들이 민간조직을 많이 만들어 자기들이 관에서 물러나면 그 조직에 가서 앉기 때문에 관민유착, 관피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 20년간 관리들의 큰 폐단이 관리폐쇄형입니다. 관리폐쇄형의 대표적 폐단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시제로서 이를 통해 사람을 뽑는걸 아주 제한해 버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웬만큼 잘못해도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제가 관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공무원법 제68조입니다. 공무원은 능력부족이나 정책적 실책에 의해서 신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60~80년대 국가를 주도 운영하던 관료는 사라지고 관원이 나라를 다스리는 관원치국이 됐어요.

현대적 거버넌스 능력없어

우리나라의 연간 여객이 1년에 1천6백만명에 이릅니다. 그 엄청난 인구가 그 노후한 배를 타고 다닙니다. 이러한 연간 인구가동빈도는 세계에서든 높은 수준의 미국을 능가할 정도라고 합니다. 관민유착의 관리는 그런 실태를 방관하고 감시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어린 학생들이 참사를 당하고 나서야 우리 현실을 재정비하고 국가를 개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게 한 겁니다.

남시욱 두 가지 점에서 관료조직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심서에 나오는 도덕률이 있는 관원들, 원님들의 그런 정신조차 잊어버리고 또 하나는 사회 발전에 따라 세밀화 전문화 되어야 하는 현대적 거버넌스(governance)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행정을 하는 점입니다. 연안여객선은 대체로 적자라고 합니다만, 수도의 관문인 인천과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노선

남 시 욱



민간브레인 나서서 중단기 처방 마련해야 국회·官에 맡기면 아무것도 안돼

을 세월호 회사 한 군데서 독점도록 한게 문제입니다. 항공도 경쟁을 시켜야 하는 마당에 독점적 구조가 필연적으로 엄청난 부패구조를 형성했을 겁니다. 옛날식의 모럴도 없고 전문화한 사회를 관리할 능력도 없는 관료조직이 돼버렸습니다. 공통화한데다 부패해 빚어진 최악의 케이스가 이번 사건입니다. 관료조직 가운데서 해운 해양수산분야가 비교적 변방지역 같은 인식을 주고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가장 인명에 관계되는 그런 분야에 관리능력이 미치지 않고 거버넌스를 못한 겁니다. 안전처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그에 앞서 민간에서 훌륭한 분이 책임자가 돼서 보고서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 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진단하고 처방하는걸 관료조직이나 국회에 맡겨선 안 돼요. 공무원연금 문제 하나도 개혁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해당하거든요. 관피아 국가가 돼 있어요.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인 걸 구분해서 민간 브레인들이 나서서 정밀한 블루 프린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명호 그럼 기본도 지키지 않는 이런 풍토를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송 복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국가시스템은 정부와 사회와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부조직은 관 조직이니까 그 관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느냐 하는 것이 시스템 개조입니다. 첫째로 우리나라 관을 현장관리중심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일선 기관장에

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고 거기에 응분의 보상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가 60, 70, 80년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관료들이 현장 중심관리체제로 산업화를 하는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었습니다. 삼성그룹이 세계적 삼성이 된 것도 가장 중요한 현장관리를 잘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선기관장은 관원이 돼 있어 옛날처럼 관료로 복원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인사채용의 분권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공무원수가 중앙공무원이 한 60만명에 지방공무원을 합하면 1백만명이 넘고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수백만명입니다. 정부도 정확한 숫자를 잘 몰라요. 이 많은 인사를 행정부서 한 개 내지 두 개가 다 관장합니다. 각 부서별로 자기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뽑는 채용분권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개방형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옛날과 달리 지금 민간 해외부문에 인재들이 참 많습니다. 고시제를 단번에 없애기는 어려울 겁니다만, 미국이나 유럽식으로 인사기용의 개방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번째로는 고위직 산하단체 취업규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부서가 민간부문을 광범위하게 조직을 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의 사업자 조합 혹은 협회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물러나면 거기에 들어가고, 들어가면 로비를 하고, 로비를 하니깐 비리가 쌓이고 부패가 일어나고 마침내 관피아가 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걸 막아주는 것으로 산하기관 취업규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번째는 고위 공직자의 장기 임용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 차관이 적어도 대통령과 함께 들어가고 물러나는 장기적 관리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어야 그 밑의 부서를 통할할 수 있습니다. 1990년 이래 20년 동안 장관들의 평균수명은 11개월입니다. 조직점검만 하다가 1년이 다 가버려요. 내각이 여론무마용이고 논공행상용이 됐어요. 그런걸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상이 내가 말하는 주요한 다섯가지 국가시스템 개조입니다. 사회적 차원의 개조는 또 다른 겁니다. 급선무는 국가 차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셀프개혁은 안 되거든요. 다른 민간인이 들어가서 바꾸어야 하고 민간인을 채용해서 바꾸려면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의 지지가 강력하게 뒷받침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한 몇달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개혁이 중단되고 맙니다.

정쟁으로 지새는일 없어야

남시욱 김영삼정부 때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민간인 위원장의 커미티를 만들어서 세계화 하자는거. 나는 그런걸 발전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야까 미시적으로 보면 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세 사람을 누가 냈느냐, 우리 사회가 낸 거죠. 사회를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요. 우리 사회에는 삼성이 있는가 하면 세월호 회사, 이 두 개가 공존합니다. 정확히 우리의 위치를 자리매김해서 거기서 나오는 국가시스템 개조 장기방안을 전문가들이 만들어야 해요. 전문가들이 하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국회에서 왔다갔다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정쟁으로 끝나버려요. 그런 일이 이번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문명호 국가개조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는 시민의식, 가치관, 도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 복 국민의식을 고양한다든지, 우리가 바라지 않는 민족성을 바꾸어야 하겠다 하는 거라든지, 이런건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위대한 선각

■ 긴급대담 — 세월호 대참사 수습과 가야할 길

官조직 현장중심으로 바뀌어야

2면에서 이어집니다.

자가 나와서 지도를 해서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게 시장이에요. 시장사회(market society)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윤리의식과 사회적 도덕개념이 높아요. 시장이 발달한 사회가 선진국이고 문명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사회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시장사회의 핵심은 자유경쟁입니다. 이 자유경쟁 시스템이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 것이 정부와 관료의 역할입니다. 이 관료가 마피아 노릇을 해버리니까 사회도덕이 죽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남시욱 희생자들이 꽃다운 나이의 아이들이고 하니까 모두 죄의식이 있어서 각자 반성하고 죄인이라고 하는건 굉장히 찬양할 만한 일이지요. 그러나 5천만 총참회론은 객관적 분석이나 진단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아요. 시장이 실패했다는 점과 현대국가를 관리하는 거버넌스 입장에서 아주 냉철한 의사들이 진단해 내듯이 전문가들이 만들어 내는 블루 프린트가 나와야 합니다. 그건 관료들의 힘이나 정치 힘으로 안 돼요.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드는 설계도를 보고 싶습니다.

송 복 시장논리대로 했으면 이런 사고는 안 벌어지지요. 저임금 제도를 만든다는건 시장논리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시장논리대로 움직이려면 정치발전이 돼야 해요. 경제, 사회, 교육, 도덕이 다 발전했는데 발전 안 한 1950년대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정치거든요. 정치 저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발전 하지 않으면 정치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야당이 정책정당으로 되고 당리당략보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계속 정치 저발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남시욱 사건이 나고 원로 선장출신을 만나 많은 얘길 들었는데요. 어떤 관청은 크루스에 승선하면 손님들을 일정한 시간에 강당에 다 모이라 해서 선원들과 함께 비상시 훈련을 하고 출항한대요. 군함에서는 매일 하고요. 이번에도 그렇게만 했으면 희생자를 크게 줄였을 거예요. 영국정부 초청으로 영국에 갔을때 하원 의사당에서 몇 가지 인상적인 모습을 목격했어요. 의원들의 의자가 우리와 달리 교회당의 긴벤치처럼 돼 있었어요. 하원정원이 5백 몇 명이었는데 의사당이 이를 다 수용하기 어려운 스페이스였고 비상시엔 다 들어가더라도 일부는 서서 있고 서로 마주 보고 의사일정을 소화한대요. 그리고 국회는 토론을 하는 곳이지, 연설하는 곳이 아니라며 연설을 하려면 하이드파크에 가서 하라는 식입니다. 우리 국회는 그 반대로 연설하고 행동만 하지요. 정치가 나라의 발전에 디딤돌이 아니고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정치판부터 고쳐야 합니다. 국민성 개조 이전에 리더들부터 각성해야 해요. 오너, 선장, 회사사장들도 다 리더들이예요. 리더들이 잘못 돼 있습니다.

문명호 국회개혁운동을 먼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 복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지난 20년동안 시장논리를 저해하는 행동과 정책만 해왔습니다.

언론서 탐사보도 했어야

남시욱 근대가 합리성의 시대인데 우리가 그걸 아직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혁명도 안 거쳤고요. 이제는 국내 항공의 안전문제도 감시해야 합니다. 언론이 해야 합니다.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언론의 빛나는 공헌 하나가 탐사보도(investigative reporting)입니다. 미국기자가 앰블런스의 문제와 실태를 취재, 탐사보도한 적이 있어요. 환자응급처치교육을 받는 등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추어 시험에 합격해야 앰블런스 일을 할 수 있어 기자

가 신분을 위장해서 그렇게 했어요. 취재를 해 보니까 앰블런스가 더럽고 엉망진창이었어요. 심지어 술주정꾼이 음주운전을 하는 거예요. 가령 이번에도 기자가 미리 세월호에 잠입해서 현장을 취재해 탐사보도를 했다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은 탐사보도를 하는 기자에게 취재비를 지원해 주어요. 스텐 펀드(Stern Fund)지원금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폴리처상

송 복



인사채용 분권 - 개방화 시장논리 살려 나가고 자유누리되 책임지는 '가치국가' 지향해야

을 받은 미라이사건 탐사보도가 그 한 예입니다. 세월호 사건에 세모의 주인이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의문을 갖고 달려들어 위터게이트 사건처럼 취재해 탐사보도를 했어야 한다고 보아요. 언론에도 책임이 있지요. 그러나 일반 국민에도 책임이 있다는 건 문제의 초점을 흐리는 거예요.

문명호 이번 참사가 실종된 생명존중과 물신주의에서 야기된 것은 아닌가요?

송 복 선장이 2백50만원을 받고도 자기 직무에 충실했다면 물신주의에 젖은 사람은 아니지요.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지요. '見利思義'(견리사의)해야 하는데 돈을 너무 생각해버리면 '見利思益'(견리사의)이 된다. 이익을 보면 더 이익을 갖기를 생각한다. 그리고 '見危授命'(견위수명)이다. (나라나 배가)위험에 처하면 선장인 내가 생명을 바쳐야 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발휘해야 하는데 '見危授命'(견위수명)이다. 위태로운건 백성에게 맡겨버리고 저는 도망간다, 이게 물신주의에 젖든가 잘못된 선장과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이란 것입니다. 중국 역대 왕조의 패망원인에 대해 중국 역사학자들이 쓴걸 보면 위로 갈수록 책임을 지고 자기 목숨을 바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신주의도 어느 시대에도 다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보니까 돈에 관한 속담이 제일 많습니다. 그 물신주의를 강하게 견제하는게 교육이고 여러가지 사회생활인데 실제

적으로는 물신주의를 견제 하는 것도 시장입니다. 프리드만 이론이기도 하지요.

남시욱 5천만이 다 예의가 바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걸 바라면 유토피안이즘이지요. 다만 21세기형의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를 다스릴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안 돼있고 그런 점에서 미발전 저개발 사회란 얘기입니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으레 잘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는 걸 가상해서 여러 법적 장치나 규제를 만들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규제를 시행하지 않은거예요. 그 규제도 불충분한데다 관피아로 한통속이 돼 아무도 문제를 삼는 사람이 없으니 저런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을 세울 때 현실주의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상주의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송 복 결론적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가치국가로 더 철저히 지향해 가야 합니다. 가치국가의 대칭이 이익국가입니다. 이익국가의 대표적 나라가 중국이고 가치국가의 대표적 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 유럽입니다. 가치국가란 보편적 가치를 일상화 하는 나라입니다. 보편적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게 첫째 자유와 책임입니다. 최대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위에 맞는 책임의식과 윤리 도덕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이고 실제적인 법치입니다. 권력을, 권력기관을, 또 권력자를 법으로 묶어 버리고 법에 따라 언제나 행동하도록 만드는게 법치입니다. 법치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자유민주주의로서 선진화 돼 있느냐 안 돼있느냐를 말해줍니다. 언론의 자유, 학문과 사상의 자유, 주거이동의 자유, 기회의 평등, 인권 등, 이런 보편적 가치는 어느 수준에 가 있는데 법치가 제대로 안 돼있어 이번과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가치국가로 좀더 매진해 가는 정책을 세우고 비전도 강화 시켜야 합니다. 이 어린 학생들의 참사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시욱 아까 말한 책임있는 세 주체 때문에 3백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세 사람의 책임을 용인한 것은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어서 그 시스템을 고치자는 거지요. 모두 국가와 사회의 리더들인 감독책임자, 집행책임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겁니다.

문명호 이번 참사로 모두가 가슴 아파 하는데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사회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사람들과 그 배후세력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송 복 사회통합의 대상은 우리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내 가치로 안 받아들일것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미국은 5%, 한국은 25%까지나 된다고 봅니다. 이들은 법치의 대상이고 교육의 대상이지 통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의 천안함 발표를 죽어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 뭉든지 정부가 발표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대한민국이 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과 친북 중북하는 사람수를 추정한 수치입니다. 통합의 대상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은 교육하면서 철들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요.

문명호 사실확인이라든가 검증되지 않은 보도로 불신과 혼란을 일으킨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행태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법가치 인정해야 통합대상

남시욱 그건 정말 언론인의 한사람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전제하고 얘기합니다. 모 종편에서 사실과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TV에 등장시켜 엉터리

4면으로 이어집니다.

法治없으면 官治 - 政治가 설친다

4·16 세월호 사고로 한국이 3류 국가가 되었다고 내외에서 탄식이다. 그러나 정작 3류 국가는 ‘4·16 이후’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는가? 세계 15대 경제대국이며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가 한 달이 넘도록 국가만사 다 체체 놓고 비탄과 대통령 타령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대통령이 사과해야- 이씨왕조시대처럼 대통령이 소복입고 3년 석고대죄를 해야 끝날 것인가.

영똥한데 책임소재 돌리기

민주주의국가는 그 이름대로 시민이 이끄는 나라다. 따라서 시민의 질에 따라 국가사회의 질이 결정되며, 사회의 ‘귀책성(accountability)’ 존재 여부가 공동체의 존립과 발전을 결정하는 열쇠가 된다. 귀책성이란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날 경우, 정부가 그 책임자를 정확히 가려내어 상응하는 징벌을 가하고 정치·사회·언론도 이런 인식을 공유하는 능력이다. 이런 상식을 갖추는 것이 민주주의 시민정신이며, 이렇게 시민각자에게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귀책 시키는 것이 법과 공권력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그런 법치민주주의의 개념이 희박해 영똥한데 책임소재를 돌리는 인간들이 늘어왔다. 세월호 참변은 기본적으로 극히 부도덕한 한 민간선사가 저지른 범죄다. 그리고 선장과 승무원들이 침몰시작 후 자기직분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적은 인명피해를 낸 하나의 선박사고로 그쳤을지 모를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청해진 선사와 승무원들이 가장 흉악한 범죄자로서 그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아야 한다. 언론의 비난과 유가족의 분노도 이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정부책임의 한계와 크기는 향후 관련 감독기관과 공무원 등의 유착·묵인, 해경 구조활동의 일탈이 어디까지 있었는지 밝혀진 연후 결정될 일이다.

그렇지만 4·16 이후 우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국적’이었다. 언론에는 이 사회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나와 “정부 리더가 제 1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생명을 못 지키는 정부는 정부도 아니다”라고 무조건 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에 얹혀 대국민사과에서 “자신이 사고의 최종 책임자”라고 자인했다. 그렇다면 선박승무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직무를 다해 승객을 모두 구했을 때 이것은 다 대통령의 공이 되는가? 박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면 그를 선출한 국민도 죄인 아닌가.

서민 선동하는 정치인 한심

우리가 큰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에게 물려가는 것은 주군(主君)이 백성의 생사고락을 결정한다는 왕조시대 신민(臣民)사상에 아직도 빠져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것이 국민의 잘못은 다 대통령의 정치 탓이고 지도자는 모든 피해자를 품는다는 반(反)민주주의 관념을 사회에 뿌리내리게 한다. 그리하여 모든 책임은 꼭대기 대통령에게 귀착되고, 나라가 잘못되었으므로 뒤집어야한다는 세력들이 설치게 된

특별기고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경제학

큰 사고 날때마다 대통령책임 거론은 왕조시대 臣民사상

法무서워 않는 풍조 처벌 제대로 않는탓

세월호 국정조사 국회가 먼저 받아야

것이다. 대통령 후보였던 야당의원이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라는 트위터 글을 되풀이하여 올려 시민을 선동함이 오늘날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다.

한국에서 와우아파트,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같은 대형사고가 몇 년에 한번씩 나는 근본적 이유는 그간 법령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위자가 경찰을 두들기고, 민권변호사는 경찰을 체포하고, 대통령이 범죄자를 수백만 명씩 사면·감형하고, 불법노점상 무허가주택 무엇하나 제어하려면 야당·좌파집단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대통령을 매도하는 나라다. 그러니 아무도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누구나 자기 책임을 적당히 때우려한다.

법치가 없으면 그 자리에 관치와 정치가 설치게 마련이다. 공무원은 기업의 범죄·범법을 묵인하고 관료는 정치와 기업에 줄을 대고, 경찰은 무법자의 눈치를 보고, 해경의 무능함 같은 일탈이 존재하는 것은 모두 법이 자신을 가차 없이 처벌하지 않을 줄 믿기 때문이다. 어떤 대통령은 “정당하지 않은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어떤 시장은 대학생들에게 “감옥에도 꼭 가보라”는 연설을 했다. 이런 법치부재·경시의 오랜 적폐가 쌓여 사회 각 조직에 매수·기만·유착이 기생하고 만연한 것이다.

국회의원 임무포기 목불인견

세월호 사고의 여파가 증폭되자 정치권은 때를 만난 듯 국정조사를 요구하여 이제 국회의원들이 호통 치는 국정조사국면이 시작될 것이다. 사고의 원인과 구조상황은 그간 한 달 넘어 신문방송이 살살이 뒤져 이제 털끝까지 다 드러났다. 따라서 앞으로 검경이 맡은바 책임을 다해 체포 수사하고 법원이 재판하면 된다. 사고 때마다 국회가 시시콜콜 다 국정 조사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검·경·사법기관들이 왜 필요한가.

만약 이번 사고가 무능한 정치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간 정쟁에 골몰해 국회임무를 포탈해온 국회가 가장 먼저 국정조사를 받아야하지 않겠는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생긴 이후 작년 한해 거의 마비상태였다. 야당은 무슨 의도로 이를 제안했는가. 여당은 어떤 사사로운 정략 때문에 이 기막힌 법을 통과시켰고 왜 아직도 이를 폐기하려 노력하지 않는가, 특히 야당의원들이 국회를 포기하고 거리에 나가 불법투쟁에 세월을 보내고 당의 사익(私益)에 매달려 입법, 예산처리 같은 의원임무를 포탈하는 등 그 도덕적 해이가 실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지 않았나. 이런 국회를 조사·심판할 자격은 오직 국민에게만 있다.

따라서 우리국민이 명실공히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시민정신을 품는 일등 시민이 되지 않는 한 어떤 국가개조를 하든 앞으로 세월호 같은 3등 국가의 재난을 피할 도리는 없는 것이다. 이는 국민각자가 선동적 정치세력의 유혹에서 탈피해 민주주의와 귀책성을 익힌 다음에야 바라볼 수 있다. [국회]

3면에서 이어집니다.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이’가 허위사실공표로 구속되는가 하면 톱 기사에 워터마크를 달고 쓰는 나라가 선진국에서는 없어요. 손님을 끝없이 선동적 자극적으로 중개방송하는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언론이 독자들로 하여금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해설하고 분석하고 관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종편에 문제가 있어요. 정치와 언론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의 견인역할을 해야 합니다.

문명호 대통령이 책임지라 하고 물러나라는 일부 주장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남시욱 이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고 마무리 하느냐 하는 건 대통령에 달려 있고 대통령이 잘 해야죠. 그런 거 하는 건 박대통령에게 강점이 있다고 보아요. 문제는 어떤 사람을 쓰고 위원장으로 해서 좋은 보고서를 받아 역사적 문서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송 복 교수한테 한번 맡겨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셀프 개혁하면 안 돼요.

송 복 이번 사건은 김영삼 김대중 정권이라 20년간의 적폐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보다는 국가개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회]

대한언론인회 제창 ‘국민대각성운동’ 확산

사회지도층 118명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발족

세월호 대참사 이후 ‘국민 대 각성 운동’을 제창한 대한언론인회에 이어 사회지도층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 대 각성운동>을 펴고 있다.

5월26일 오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있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창립대회에서 참석한 1천 여명의 지지자들은 “세월호 사태는 선주의 황금만능주의, 선장의 직업윤리실종, 당국의 감독소홀과 무능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공직부패와 정경유착, 공동체 윤리부재, 안전 불감증, 법질서 경시가 근원원인임을 지적하고 잘못 된 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편승했던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반성했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이 대 각성운동을 일으키자면서 종교 교육 법조 학계와 정치 경제 문화예술 언론계의 반성과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돈보다 보람과 가치를 중시하고 공직부패와 관료주의 근절, 정치권에 대한 국민감시운동을 펴자고 결의했다.

이날 발족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118명지도층에는 언론계 대표로 본회 구종서 김경래 김진기 김진현 도준호 문명호 박병진 신동식 이경재 이도형 정기정 정일화 제재형 현소환 홍원기 회우 등이 참여 하고 있다. [국회]

세월호 참사는 ‘更張’재촉 신호다

사회질서 붕괴의 조짐

해난 구조에 관한 법령, 규정도 마련되어 있었다. 제도도 갖추어져 있었고, SSU 등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구난 전문가도 있었다. 장비도, 구조선도 있다. 그러나 연안에서 조난 당한 여객선에서 인명구조에 실패했다.

두 가지가 헝클어져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첫째는 조직, 인원, 장비를 인명구조에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이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세계 최강의 ‘잠수함 구조대(SSU)’와 ‘수중파괴대(UDT)’를 갖춘 해군과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함정과 인원을 갖춘 ‘해양경찰’을 동원하여 현장에 적시에 투입할 수 있는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 승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중, 삼중의 감시체제가 있었지만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 짐을 몇 배씩 싣는 선원, 그리고 이를 눈감아준 관리와 관련 책임자들, 사람 목숨과 관련된 불법 선박증축을 허가해준 관련 기관…。 법규와 제도가 모두 따로따로 놀다보니 정작 여객 보호에는 힘을 쓸 수 없었다.

둘째는 제도, 규범을 뒷받침하는 정신의 붕괴다. 제도는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데 정신이 허물어지면 제도는 역기능을 하게 된다. 사람 목숨 지키겠다는 정신의 실현을 위해 만든 법규가 그 정신에서 유리되면 공기(公器)여야 할 법규가 관련 공무원의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한다. 과적(過積)을 금지하는 법규는 여객 보호를 위해 만든 것이지만 그 목적과 달리 관리가 눈감아주고 뇌물 받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면 그런 법규는 없는 것만 못하다.

있는 장비, 인원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지휘체계의 붕괴와 제도와 정신의 유리(遊離)는 모두 공동체 지도역량의 붕괴에서 오는 것이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은 바로 공동체 정신인데 이 정신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허물어지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질서를 향해 허물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열역학 제2법칙’이다. 물체의 한 쪽에 열을 가하면 뜨거워지는데 내버려두면 전 물체가 같은 온도가 될 때까지 고르게 식어 버린다.

물병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물 모두가 같은 잉크 농도를 가질 때까지 흩어진다. 질서란 이러한 자연의 흐름에 거역하여 사람이 자기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든 ‘인위적인 상태’이다. 그래서 질서가 유지되려면 끊임없이 힘을 쏟아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 질서를 관리하는 정치다.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과 질서를 허무는 자연의 흐름의 균형점이 그 시점에서의 질서의 모습인데 여기서 질서 지탱의 힘이 자연 붕괴의 힘에 밀리면 그 질서는 붕괴된다. 이런 과정이 역사의 흐름이다.

공동체 정신 되살려야

공동체 정신에서 구성원들이 함께 지키려는 가치가 도출된다. 공동가치가 공동체 질서관리의 원칙으로 다듬어지면 정치이념이 되고 그 이념이 공동체질서를 유지하는 근본규범(Grundnorm)을 만들어 낸다. 이 근본규범이 허물어지면 그 규범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낸 법, 규정,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질서 붕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국가는 공동체 정신을 공유한 인간의 집단이 만들어낸 질서관리조직이다. 그래서 국가는 공동체 정신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대체로 한 국가의 수명은 200년 쯤 된다. 중국의 역사에 등장했던 24개 왕조의 평균 수명은 230년이었다. 이른바 왕조주기(王朝週期·dynastic cycle)이다. 강한 공동체 정신으로 만들어진 왕조는 점차 그 정신이 해이해지면서 200년 쯤 지나면 붕괴하고 새로운 신흥왕조로 교체되었다.

율곡(栗谷) 선생은 1583년 임금을 모신 경연에서 경장(更張)을 강하게 주장했다. 바른 정신으로 시작된 조선(朝鮮)이지만 200년이 되고 보니 개국 정신은 해이해졌고 잘 다듬어 만들었던 모든 제도가 정신과 유리되어 공기(公器)여야 할 제도가 관리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해서 이대로 놓아두면 10년 내에 나라가 흩담이 허물어지듯 붕괴하게 될 것(土崩)이라고 했다. 활을 다시 쏘려면 다시(更) 줄을 팽팽하게(張) 해야 하듯이 건국정신의 재건을 도모하는 거국적 경장(更張)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받아



이상우

- 본회 회우
- 전 조선일보기자
- 전 한림대 총장
- 현 신아시아 연구소장

이시대의 선비들인
학자, 언론인, 작가등
지식인 대오각성

공동체정신 되살릴
‘새마음 운동’ 펼쳐야
대한민국 土崩 막는다

들여지지 않았고 9년 뒤인 1592년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체제 붕괴를 겪게 되었다.

다시 200여 년이 지난 19세기 말 뜻있는 선비들이 앞장서서 갑오경장(甲午更張)을 시도했었으나 조선왕조는 대한제국을 거쳐 20세기 초에 멸망했다. <경국대전>이라는 당대 제일 앞선 규범체제와 치밀하게 짜여진 국가관리제도를 갖추었던 조선왕조도 공동체 정신 붕괴로 자멸하고 말았다. 15세기 당대 최강의 문명 선진국 명(明)제국도 200년 만에 망했고 신흥제국 청(淸) 나라도 세계 최대의 영토를 가진 강대국으로 성장했었으나 200년을 넘기면서 작은 섬나라 영국 등의 도전 앞에 제물에 허물어졌다. 영토, 국가관리제도, 군대… 모든 것을 다 갖춘 제국이었지만 건국정신이 허물어지면서 흩담이 허물어지듯 쓰러졌다. 역사는 이렇게 정직하다.

知識人들부터 自省해야

누가 공동체 정신을 만들고 지키는가? 그 사회를 이끄는 지식인들이다. 조선조는 선비의 나라였다. 선비들이 공동체 정신을 시대에 맞게 다듬어 나가는 사명을 가진 지식인 집단이었다. 나라 안팎의 사정을 모두 살피는 ‘넓게 보는 안목’과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깊게 보는 안목’,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멀리 보는 안목’을 갖추고 시대정신을 다듬어 나가는 공동체의 첨병 노릇을 맡은 집단이었다. 관리는 이 정신을 규범화하고 이 규범을 실천해 나가는 일을 맡았었다. 그리고 이들 지식인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 정신을 보급하고 설득하여 합의된 공동체 의식을 창출하고 유지해왔다. 이러한 작업을 공동체 운영의 리더십이라고 한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껍질 속에 숨겨져 있던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햇볕 아래 다 노출해 보여주었다. 건국 60여 년 동안 구축해온 화려한 겉모습 속에 묻혀있던 ‘왕조주기’의 말기적인 추한 몸체가 낱알이 드러났다. 우리가 꿈꾸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려면 온 국민이 각오를 다시 하고 경장(更張)을 해야 한다.

우선 이 시대의 선비들이라 할 학자, 언론인, 작가 등 사회 지도자인 지식인들이 대오각성 해야 한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못했던 것을 자성하고 과감하게 공동체 정신을 바로 잡아가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식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삼아 사회질서를 허무는 일에 나서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오늘의 혼란을 가져온 1차적 책임은 지식인들에게 있다고 본다. 집단이익, 정파이익, 계급이익을 앞세워 공동체질서를 해치는 언설을 쏟아내온 지식인들은 자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질서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직자들도 반성해야 한다. 법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그 법의 정신은 제쳐두고 형식적인 행정을 일삼아 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불합리한 법은 고치고 법이 없으면 보완하여 법의 정신이 실천되도록 하는 능동적 공직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들은 다양한 사회 내의 자율조직을 활용하고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존중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옛날과 다르다. 관리해야 할 일이 방대하다. 이러한 일들을 공직자가 자기만의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폭넓게 민간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더 급한 것은 범국민적 ‘새마음운동’의 전개다. 50년 전의 ‘새마을운동’이 빈한한 한국을 반세기만에 경제선진국으로 만들었듯이 ‘새마음운동’을 펼쳐 공동체 정신을 되살려내야 한다. 사회기관의 요직을 퇴직공무원의 후생을 보장하는 자리로 써온 이른바 ‘관피아’의 작태도 극복해야 한다. 공익단체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을 남용하여 민간단체의 인사에 개입하는 ‘관행’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자율적인 전문기관들이 모두 위축되어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두고도 활용 못하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을 국정운영에 효과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 군·관·민 통합운영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요직에 민간 전문인력을 영입하는 개방된 관료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급한대로 이러한 몇 가지 영역의 경장운동부터 시작해야 대한민국의 토붕(土崩)의 변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세월호 사건’을 하늘이 훈미해진 우리의 정신을 일깨워준 경종이라 생각하자. ☞

그래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나는 진도앞바다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명복을 비는 시를 쓰면서 눈물을 흘렸다. 가슴이 아팠다. 세월호의 악마라는 표현까지 쓴 세계의 반응 앞에 부끄럽기도 했다.

지금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위로 받고 싶고 정신적 치유가 필요하다.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은 그냥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필연의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공분을 금할 수 없다.

발전하는 사회일수록 사람이 우선이라고 지도층에선 그럴듯한 표어를 내세워왔다. 그러나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건의 원인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에 따른 무모하고도 어처구니없는 일부 선원들의 작태는 한마디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이었다.

과다한 하물적재로 수익에만 급급하고 수많은 승객들 생명보다도 저 하나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맨 먼저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이었다.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형편없는 선박에 우리의 소중한 학생들과 승객들이 무심히 타야했던 우리나라 안전불감증의 검증체계에도 화가 난다.

단체희생이 제일 컸던 단원고교 학생들은 제주도로 향한 즐거운 수학여행길이었다. 노동으로 모은 돈 움켜쥐고 제주도에서의 새출발에 들떴던 젊은 부부의 이삿길, 초등학교 동창부부들의

환갑기념 여행길... 또 얼마나 많은 슬픈 이야기들이 있으리.

그런중에도 학생에게 구명조끼 벗어주고 희생된 교사와 여승무원등 의사자들이 있고, 유족들의 통곡이 멈추지않는 그곳에 전국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잠수사들의 헌신적인 구출작업이 계속되었다. 아, 이런 것이 사람사



김후란

·본회 자문역·시인
·전 경향신문 문화부차장
·'문학의 집·서울' 이사장

세월호 계기 남 배려 정신 살려야

는 세상의 도리가 아닌가. 남의 불행에 함께 슬퍼하는 가슴들이 있는 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현대사회는 언제부터인가 공감하고 감동하는 가슴을 잊고 지내는 경향이 있지만 태안반도 앞 바다에 엄청난 기름이 쏟아졌을 때 구름떼처럼 자원봉사자들이 몰려가 기름제거작업을 하지않았던가. 이번 진도앞바다의 비극의 현장에서도 밤을 새워 위로와 도움을 펼치는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않는다.

교육과 정신함양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문화의 시대에 필수되어야 할 것은 시민사회의 성숙도와 남을 배려하는 이타심이다. 그리고 이런 자세는 가정교육에서부터 몸에 배야 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공적인 책임인식이 철저히 훈련되고 생활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위기관리 시스템이 너무 허술한게 아닌가 한다. 외국선박여행의 경우, 출발 30분 전에 전체승객을 미리 나눠준 위치도에 따라 각자 지정된 갑

판위치로 집합시켜 구명조끼입고 비상탈출 예행연습을 시킨다고 했다. 자동차운전면허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선 고령자에게 5년기한으로 면허증 갱신이 요구되지만, 미국에선 80세이상의 고령자는 6개월에 한번씩 운전테스트를 해서 면허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개개인의 안전은 물론이요, 남들에게도 위험이 되지않게 하려는 사회적 배려인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속한 요원들의 책임감 또한 엄정하다고 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매일같이 언론보도에 휘둘린 탓인지 너무 마음이 울적해져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며 정신순화를 도모한다. 시간을 내어 숲길을 거닐면서 심호흡을 하고 이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쓴다. 심정적으로 힘든 때일수록 문학작품이나 예술이 상처받고 좌절한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주고 정신적 여유를 안겨준다고 하겠다.

교수신문에서 해마다 대학교수들의 다수의견으로 채택해온 올해의 사자성어가 '전미개요'(轉迷開悟)였다. 지난날의 거짓과 속임의 미혹함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자는 뜻이다. 이 사자성어처럼 이번 사태를 통해 절감했던 그릇된 관행과 부조리를 과감히 시정하고 진실된 건전한 새로움으로 다시 일어서자고 말하고 싶다. 우리 모두 그렇게 노력해가야 한다. [4]

세월호 슬픔을 국가개조 지혜로 바꾸자

슬픔은 자제할수록 엄숙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힘들지만, 이젠 슬픔을 가슴에 묻고 걸으려는 털어야 한다. 어른들의 탐욕으로 꽃도 피우지 못하고 숨진 고교생들의 영혼을 위로하면서 진상을 밝히고 총체적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대변혁에 온 국민이 정성과 힘을 합쳐야 한다. 슬픔은 자제 할수록 엄숙하고 가치를 발한다.

이젠 세월호 참사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에서 벗어나 오늘의 삶과 발전적인 미래도 생각해야 한다. 언제까지 비탄과 자학과 허무주의에 사로잡혀 정략적인 무정부주의적인 행진을 계속할 것인가. 일상으로 돌아와 진상을 밝히고, 재발 대책을 세우고, 처방을 마련해야 할 때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을 좌초시킬 수는 없다. 선진국 문턱에서 침몰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삶이 두려워 정부를 만들고, 죽음이 무서워 종교를 믿는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보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할 만큼 무능했고, 종교는 영혼을 다스리지는커녕 악마와 입맞춤 했다. 그러나 단원고 학생들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귀한 생명을 바다에 묻으면서도 구명복을 양보하고, 마지막까지 서로를 격려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고귀한 인성과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그들은 죽으면서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철학적인 교훈을 몸으로 남겼고 희망의 꽃씨를 뿌렸다.

마지막 기회로 생각을

어린 학생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젠 마음을 가다듬고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대변혁에 나서야 한다. 대형사고가 터지면 정부는 컨트롤타워가 없이 우왕좌왕 갈광질광 하면서 관계 기관은 서로 책임전가에 급급하며, 공직자들의 뿌리 깊은 부패 고리는 '관피아'를 형성하면서 예방은커녕 대형사고를 촉발하고 있다.

또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극단의 개인 탐욕주의를 불러오면서 고발정신 등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기본 윤리를 퇴행시켰다. 이젠 어긋난 정부 시스템을 바로 잡고, 공직자의 부패 근원을 차단하고, 국민 도덕 재무장으로 국민의식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정부조직 구조 개혁과 공직자 부패



김 화

·본회 회우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현 데일리리뷰 정책고문

척결은 정부와 국회의 몫이고, 국민의식 혁신은 국민의 차지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국가대변혁의 기회로 바뀌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모두가 변해야 한다

대형사건이 터지면 여론은 비등하고, 관계기관은 대책을 세운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국회는 진상조사 특검 운운하면서 생색을 내지만 내심으로는 여야가 정략적 계산만 속셈하고 있다. 왁자지껄 소란스러운 일정 기간 흥분상태가 끝나면 바로 전 상태로 복귀한다.

사건이 터지면 일부 제도를 개선하고, 문책성 인사를 하면서 혁신의 흉내를 내지만 근본은 손대지도 못하고 미봉책에 그쳤다. 더욱이 일부제도 개선과 규제 강화는 해당 공무원들의 권한확장과 뒷돈 열심히 챙기기에 이용되는 악한 결과만 초래했다. 공직자는 여전히 부패하고 '관피아'의 고리는 더욱 그악해졌다.

정부는 무능하고, 공직자는 부패하고, 국회의원들은 게으르고 국가와 국민의 이

익보다 개인과 정파의 이익에 몰입하고, 사법부는 권위의식과 전관예우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뒷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공공질서 안 지키기는 습관이 되었고,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도 팔면서 '공공의 선'을 외면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누구 한 사람 탓이 아닌 정부기구, 국회, 사법부와 국민 모두의 총체적 과실이다.

이제껏 해왔던 의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는 대한민국 개조는 불가능하다. 혁명적인 의지와 특단의 결단력이 필요하다. 국가개조는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국회가 앞장서야 하고 국민이 응원해야만 가능하다. 공직의 기강을 잡는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대통령은 어긋난 정부의 틀과 해이된 공직자의 기강을 추상같이 바로잡고, 국회는 국가개조 법률을 선도적으로 입법하고, 사법부는 부패의 뒤처리를 공명정대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국민은 선진국에 맞는 윤리회복으로 응답해야 대한민국은 대변혁을 이룰 수 있다.

이제 슬픔을 국가개조라는 대변혁을 위한 지혜로 바꾸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잉태한다. [4]

자유통일만이 전쟁 끝내는 길

6·25
64주년

특별기고



김희상

·육군중장(예)
·정치학박사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중국 목소리

더 커지기 전

美·日과 손잡고

통일기회 잡아야

“햇볕 햇볕”하며

북한체제 도와준

20여년 세월

되풀이해선 안돼

돌이켜 보면, 1950년 6·25 당시 자연자원 에너지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북한에 치우쳐 있었고 군사력도 북한이 압도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습남침을 받았으니 대한민국은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었다. 그러나 그 후 반세기, 우리는 그런 속에서 문자 그대로 피와 땀으로 역사를 반전(反轉)시켰다. 북한은 수 십 년 세습 김씨 왕조의 계속된 실정(失政), 폭정(暴政)으로 사실상 체제유지의 한계에 몰려 있는 반면, 우리는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을 넘보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도(主導)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2002년 넘어 온 한 탈북동포는, 1990년대 후반, 그러니까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체제가 시작되던 때에는 지방 출장을 나가면, 길거리에 굶어 죽은 시체가 즐비했는데도 제때 치우지도 못했고 평양에는 김정일이 제 아버지 김일성을 죽였다는 의구심도 들고 해서 체제를 장악하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그래서 ‘이때 남조선이 좀 단호히 나섰으면 김정일 체제는 출범도 못하고 통일도 되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이때는 공산주의 종주국(宗主國) 구소련을 포함해서 북한을 지원하던 세계의 공산독재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가운데 중국도 북한 보다는 우리 눈치를 볼 때였고 온 세계가 북한의 조기붕괴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살았더라면 동족간의 이 불합리하고 불행한 갈등관계는 벌써 끝이 났을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김정일 체제는 살아남았다. 단순히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사상 초유의 군사력과 핵으로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해 왔다.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다. 생전의 황장엽씨는 대놓고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가슴을 찢고 그 탈북동포는 “남측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살아나더라.”고 말했다. 실제로 햇볕정책 10년간 우리가 퍼준 돈이 69.5억불,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 그런데 김정일은 일반주민은 ‘고난의 행군’ 속에 굶어죽게 내버려둔 채, 그 돈으로 당·정·군의 친위 세력들만 먹여 살리면서 강성대국을 내세워 전력을 다해 핵을 만들고 군대를 키웠다. 그 많은 돈도 부족했는지 우리는 GDP 2.5% 군사비도 많다고 눈을 흘기는데, 김정일은 25~27%나 써댔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김정일체제는 대규모 군사력에다 핵까지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6·25 무력적화통일계획이 실패한지 반세기만에, 우리에게 자유통일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우리가 자유통일 대신 많은 돈으로 김정일 체제를 살려내고 유례없는 도발 역량까지 갖추게 해준 셈이다. 그러니 그 경제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는가? 결국 회복불능의 파탄상태에 들고 마침내 체제 자체가 한계상황으로 몰려가고 만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망가진 경제를 회생시킬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체제를 바꾸고 개방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인데 김씨 왕조가 스스로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 한 개혁 개방을 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북한 체제는 아예 구조적으로 주변의 도움 없이 먹고 살수가 없고 적화통일을 실제로 이루는 외에는 항구적 체제위기를 벗어날 길도 없게 되어 있다. 결국 주민은 굶주리는데 오로지 핵과 군사도발, 간접침략 같은 도발수단들을 잘 조합해서, 한 편으로는 강대외교로 공갈을 쳐서 식량과 에너지를 얻어내고, 나아가 한국사회를 교란하며 적화통일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하기가 6·25이후 지금까지도 전면 남침은 없었다 뿐이지 그 동안 언제 남·북간에 진정한 평화가 유지된 적이 있었는가? 단 일순간도 있어 본적이 없다.

특히 결정적인 위협이 북한 핵이다. 사실상 완벽한 대책도 없다. kill-chain은 비용과 기술도 문제지만 그것으로 완벽할지도 의문이고, 이른바 ‘미국 핵우산’도,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다른 나라의 핵이라면 몰라도 우리에게 대한 북한 핵의 위협은 ‘미국 핵우산’으로 커버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크다. 심지어 설사 우리가 핵을 만든다 해도 도움은 되겠지만 완벽한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 핵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결국 북한 핵의 완벽한 대처 방법은 폐기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나 북한이 스스로 폐기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고 오늘 국제적 상황을 보면 갈수록 기정사실이 되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길이 전혀 없을까? 단 하나, 2007년 2월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이 2차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그리고 이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듯이 한반도 자유통일뿐이다. 하긴 핵뿐만이 아니다. 그 외 북한의 모든 도발이 다 마찬가지로. 심지어 북한 간접침략에 대처하는 데도 그렇다. 평양에 박힌 뿌리를 파내지 않는 한 우리사회 중복세력을 쓸어낼 수 없을 테니까.

결국 오늘 한반도 상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북한은 ‘적화통일을 추구하는 더할 수 없는 위협이자, 한계에 다다른 병든 체제요, 구원을 기다리는 불쌍한 동포’라고 하는 몇 가지 상반된 모습들로 서 있고 그런 그들이 지금 ‘핵’과 ‘군사도발’ ‘간접침략’ 같은 것으로 적화통일에 항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자유통일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역시 자유통일 외에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항구적으로 끊어 낼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하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동족분단대치 상태는 어차피, 또 시급히 극복해야 할 장벽이다. 결국 통일은 우리가 21세기를 살아남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기저(基底)요 디딤돌인 것이다.

그것도 서둘러야 한다. 오늘 세계사의 큰 흐름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도약’으로 특징지어지고 있는 셈인데, 장차 중국의 목소리가 미국보다 더 커지고 중국 향모가 동서 해를 횡행하는 가운데 북한 핵이 기정사실이 되면, 우리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이렇게 좀 멀리 보면, 오늘 우리로서는 잃든 좋든 미국의 힘이 그나마 살아있는 동안에 자유통일을 서둘러 나라의 덩치부터 키우고 그 위에 좀 껴안 하더라도 일본과도 손을 단단히 잡고 여기에 미국의 확고한 동맹적 뒷받침을 받아내는 매우 대전략적 접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 육일승천하는 중국의 기세 속에서도 자유대 한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게 아닌가? 2010년 8·15때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의 기회가 왔다”고 했지만 실은 ‘이미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그랬다가는 끝내는 우리가 질수도 있는 거의 다 지나간 기회’의 끝자락’에 서있는 셈인 것이다.

그런데도 1990년대 후반 6·25 이후 반세기만에 찾아 왔던 그 운명적 기회를, ‘햇볕 햇볕’ 하면서 미루고 회피하고 또 때로는 상대를 도와주기까지 해 가면서 무려 20여년을 허송해버린 것이다. 그래도 아직은 한반도의 미래가 우리의 의지와 비전에 달려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김정은 체제도 얼핏 튼튼한 것 같아도 실은 불안정하기 짝이 없다고 한다. 하기가 북한급변사태가 거론 된 것이 어디 어제 오늘 인가? 벌써 20년이 넘었다. 이미 너무 오래 버텨 온 셈인 것이다. 오늘 세계 전문가들의 시각도 한반도 자유통일의 기회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럴 의지와 용기가 있느냐, 특히 그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기회라는 것도 원래 준비된 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걱정이 더 커졌다.

예컨대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일치된 국민적 의지인데 지금 우리사회는 아직도 중복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고, 군사적 평화적 어떤 형태이건 간에 통일은 궁극적으로 군사통합으로 매듭지어지는 법이요, 평화적 통일일수록 강한 군사적 위엄과 효율적인 뒷받침이 더욱 중요한 법인데 우리 사회는 계속 국방예산과 병력의 감축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6·25 때 북한이 그랬듯이 우리도 끝내 실패하고, 언젠가는 역사가 기회를 다시 북한에게 돌려주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사실 무릇 위기는 스스로 경계하며 대비하는 자를 벌주는 법이 없지만, 방심하고 교만한 자를 피해가는 경우도 없는 법이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까지처럼 하릴 없이 세월만 흘려보내고 있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고, 북한은 칼날을 버리고 핵을 만드는데, 우리는 군이 북한체제나 뒷받침 하면서, 동맹이나 허물고 안보태세를 흔들고 있으면 마침내는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은근히 걱정스럽다. 6·25 휴전 후 반세기, 피와 땀으로 역사를 반전시켜 이제는 우리가 평화자유통일을 주도하고 있는 형세지만, 북한 핵, 크림 사태가 상징하는 국제적 여건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도전도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혹 다소의 희생이 따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의 작은 희생을 두려워하면 내일 더 참혹한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특히 만약 오늘 우리가 역사 앞에 어리석고 비겁하면 우리 아들딸들에게 더 할 수 없는 죄업(罪業)을 짓는 게 될 것이다. [7]

“기억하는 한 혼은 살아있다”

6·25
64주년



이태영

·본회 상담역
·6·25 남북인사가족회 이사
·전 중앙일보 섹션국장

고귀한 생명 바친
호국영령들
보훈의 달 만이라도
잊지 말았으면

우리에게 6월은 슬픈 달, 진정 잊고 싶은 달이다. 6월을 맞을 때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분노심이 불길처럼 타올라 현기증을 느끼곤 한다. 때로는 임진강 가 도라산 전망대나 현충원 묘역을 돌아보며 하늘에 흩어진 혼백을 불러본다. 남북인사 가족이라 하여 어찌 나 혼자만의 감상이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6·25 비극의 그 날, 남북분단에 이어 전쟁의 포화로 동족상잔의 피를 흘린 이 땅, 슬픔의 탄식과 굶주림의 공포에 떨어야 했던 소년시절, 나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꾸다. 한 때는 햇볕정책이라는 그럴듯한 구호에 마음 흔들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나 민족화해기독교동맹에 동참하기도 했으나 그건 그야말로 허무하고 허황된 일이다. 그렇다고 평화의 화답은커녕, 마음 속 깊은 상처가 치유된 것도 아닐 테니 말이다.

지난 해 정전 60주년을 맞았을 때 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임진강 가 도라산 역사(驛舍)에서 열린 정전기념 평화콘서트였다. 참전 16개국의 연주자들이 펼치는 이 콘서트에서 우리나라 신영옥, 고성현 등 솔리스트들의 노래 ‘아리랑’과 ‘비목’ 그리고 ‘향수’가 마음을 더욱 울적하게 했다. 그 1년 전 임진강 앞 평화누리에서 펼쳐졌던 이스라엘중심의 케도 오케스트라와 조수미의 노래 역시 그러했다.

6월이 되면 슬픔의 나그네가 되어 이곳저곳을 배회하곤 한다. 남북희생자인 언론인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리며 광화문 동아일보사의 신문박물관을 찾거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동참했다가 여러 차례 옥고를 겪으신 그 영혼의 자락을 잡으려 서대문형무소 자리의 독립기념관과 공원을 돌아보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최근 또 하나의 경험이 있다. 지난 3월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의 북한인권 청문회에 남북인사 가족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석하여 세계의 규탄여론과 분노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선 유엔의 제재를 피해가려는 북한대표의 꾀변과 우리 대표의 강경한 비판발표가 있었다. 이어 네덜란드 헤이그와 영국 런던으로 옮겨 진행된 인권연구 정책포럼에서 정의와 진실에 근거한 양심의 호소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다.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세계의 여론이 그러할진대 그들은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는가.

제네바를 떠나기 전 우리는 탈북단체 대표들과 함께 북한 대표부를 찾아가 정문 밖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다 스위스경찰의 문초를 받기도 했다. 이에 앞서 유엔행사에서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씨가 아리랑연주로 심금을 울려주었을 때 이미 가슴 속에서는 슬픔의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Now We Know’라는 국제인권단체의 구호에서 보듯 지

금 세계는 북한을 성토하며 유엔차원의 제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는 북한인권법을 미루어 놓은 채 침묵하고 있으니 어이없는 일이다. 남북이든 탈북이든 북한이 저지른 죄악이 만천하에 공개된 지금, 더구나 유엔의 인권조사위(COI)가 엄청난 보고서를 발표한 오늘에 이르러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묻고 싶다.

이어 헤이그를 찾아가 국제인권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한 기회에 이준열사 기념관을 둘러보았다. 이준 아카데미로 다시 태어난 이 기념관에서 일본의 침략야욕을 세계에 고발하면서 대한제국의 독립정신과 세계 상등국가를 향한 강렬한 의지를 보여준 세 열사의 숭고한 혼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시 세 열사의 한 사람인 이위중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호소했다고 한다. “우리는 정의와 평화의 신을 흠시라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이곳에 왔다. 온유함은 연약함이다. 진정 정의가 살아 있다면 일본의 침략을 세계만국회의가 왜 지켜보기만 하는가.”

6·25전란 중 어느 남북인사가 평양형무소에 남긴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다.

〈자유여, 그대는 불사조. 조국이며, 유엔이며,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구출해준다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다〉 그리고 세월이 덧없이 흘러 64년째 6월의 비극을 다시 떠올리며 스스로 물어본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그 악몽을 뛰어 넘어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는가.

나는 물망초를 늘 가슴에 품고 산다. ‘Forget me not’이라는 꽃말의 의미도 그러하려니와 격변의 역사 속에 더구나 나라를 구하고자 헌신했거나 전란 속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는 건 오늘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장미꽃송이를 전몰용사의 묘역에 바치고 영국에서는 국민 모두가 양귀비꽃을 가슴에 다는 ‘Poppys day’ 캠페인에 동참한다. 우리의 6·25전쟁남북인사가족협의회가 물망초 배지달기운동을 벌인지 오래되었고 물망초재단까지 생겼지만 나라를 위한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면 6월 호국보훈의 달만이라도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지난 역사의 상처를 새겼으면 한다.

“역사를 무시하면 그 역사로부터 보복 당한다. 역사는 역사로 끝나지 않고 어떤 결과로 오늘 존재한다.”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역사를 잊으면 그 역사를 다시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비극의 역사라면 더 말해 무엇하랴.

아프리카 스와질족의 유명한 격언 바로 ‘기억하는 한, 혼은 살아 있다’는 말과 함께 6월의 침통함, 이 슬픔, 그 가르침을 되새기려한다. 이 땅에 또 다른 분노를 만든 진도 앞바다의 비극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4]

사우회 소식

6월 27일 정기총회

경향신문

지난 5월 2일 오전 11시 사발원(사우회 발전을 위한 원탁회의)회의에서 사우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윤상철(사진 오른쪽·전 경향신문 주필)분회 자문역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사우회는 오는 6월 27일 11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14 임시총회겸 단합대회

동아일보

지난 5월 13일 서울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3백여 동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임시총회 겸 단합대회를 열었다. 김태선 회장은 이날 미수와 희수, 고희를 맞은 동우들에게 축수품을 전달했다.

동우회는 5월 20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머리기사로 한 동우회보 37호를 발행했다. 타블로이드 16면으로 발행된 이번 동우회보엔 김광희 동우회 명예회장(본회 회우)의 ‘아! 세월호--아! 잔인한 계절’, ‘최명우 회우의 ‘안전불감증 세월호로 끝내야한다’, 이병대 전 부회장의 ‘잔인한 봄-천관우선생 사모님을 문병하고’, 이종세 회우의 ‘한국 축구 월드컵 16강 가능할까’, 신광연 회우가 쓴 고 김영택 회우 추모사 등이 실렸다.

속리산 법주사 등 역사현장 답사

한국경제

회원 40여명은 지난 5월 13일 2014년 역사문화탐방 행사의 일환으로 속리산 법주사와 육영수 여사 생가 등을 탐방했다. 법주사에서는 팔상전(국보 55호)과 쌍사자 석등, 석연지, 사천 왕석등 여러



문화재를, 육영수여사 생가에서는 육여사가 생활하던 위채, 사당, 안채, 육여사방 등을 둘러보았다.

언론가 소식

한국일보 사장에 이준희씨



한국일보는 지난 5월 22일 이준희 부사장을 사장에 선임했다. 이 사장은 1984년 한국일보 견습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실장 등

을 역임했다. 부사장에는 이영성 논설위원이 선임됐다.

이왕돈 한국지역민방협회장 선출



한국지역민방방송협회는 최근 정기 총회를 갖고 TJB 대전방송 이왕돈 사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회장은 서울대학교를 나와 MBC기자로 출발해 SBS 기획실장 등을 거쳐 2012년 3월부터 TJB 대표이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신문의 날’을 ‘신문주간’ 행사로 확대

신문 협회는 내년부터 신문의 날(4월 7일)행사를 ‘신문주간’ 행사로 확대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신문의 날을 맞아 독자에게 신문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신문주간’을 신문인과 독자가 함께 기념하는 축제기간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고바우 영감’ 화백 김성환 회우 국가유공자로

김성환 화백, 그 유명한 고바우 영감이 지난 4월 6·25 당시 참전한 기록이 뒤늦게 밝혀져 국가유공자 서훈 반열에 올랐다. 이 사실은 최근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 회장이 고바우 영감의 6·25 참전 기록을 찾아 국방부에 인우보증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김성환 화백은 “생각지도 않았던 국가유공자가 되도록 주위에서 도와준 데 대해 감사한다”며 생사를 넘나들며 만화로 국군의 사기 진작을 도왔던 6·25 당시를 회상했다.

김성환 화백은 경북중학교 5학년 때 이미 종군 기록이 인정돼 1953년 3월 26일 보병 제 185부대장 이형근 준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표창장 내용인즉 “김달삼부대 섬멸작전에 종군하여 전투장면스케치 등 오묘한 화필로써 장병의 사기양



김성환 회우.

양에 기여한바 다대함으로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돼있다.

김 화백은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후부터 국방부 정훈국에서 발행하는 ‘만화승리’ (漫畫勝利·주간)와 1951년 홀병감실에서 발행하는 ‘웃음과 병사’, 1952년 10월 정훈감실에서 발행하는 ‘육군화보’ 제작 담당자로 장병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했다. 1951년 10월에는 육군 6사단에 종군 전쟁의 참상을 스케치 겸 기사화 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6·25전쟁의 참상을 스케치한 것을 모아 朝鮮戰爭 스케ッチ (2007년 6월·일본 草の根 출판회 발행)을 펴냈다. 이 책에 실린 한국전쟁 스케치는 6·25 당시 전쟁의 참상과 용맹스런 국군과 퇴각하는 북한공산군의 비참한 모습들이 생동감있게 그려져 있다. [4]

6·25
64주년

하늘은 韓國領

1950년 6월 28일 돈암동 큰 거리를 북한군 탱크대가 굉음을 내며 줄지어 남쪽으로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리의 군중들은 말 그대로 군중, 즉 방관자들 같이 보였다. 때때로 지프를 탄 홍보요원이 “여러분을 해방시킨 인민군을 환영합니다! 박수를 치세요”하고 마이크 소릴 높였지만 시민들은 방관자일 뿐 별 반응이 없었다. 속옷 몇 개가 든 보따리를 둘러메고 집에 돌아와 누워버렸다.

전쟁이란 이렇듯 허무하게 이기는 것일까? 하는 생각과 아무래도 이것이 결말이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들었었다. 30일이 되면 많지 않지만 월급 받는 날인데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정릉집에서 신당동까지 걸어갔었다. 사장이요 선배가 되는 K씨는 전쟁 때문에 수급이 안되었다면서 먹다가 남은 오징어 머리를 내게 내밀어 주었다. 당시만 해도 우리 집에서 수입이 있는건 나 혼자였다. 얼마라도 받으면 봉지 쌀을 두어 개 살까 했지만 그런 희망은 여지없이 사라졌다. 요즘은 이해가 안되었지만 당시엔 한 되, 두 되 짜리 쌀을 사기도 어려웠다. 편지 봉투에 넣고 파는 쌀을 사다가 죽을 쑤어 먹으면 그것이 행복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상에선 북한군 탱크와 군인을 잔뜩 태운 달구지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건 현실이긴 하지만 이것이 승승장구 한 모습으로 보이진 않았다. 그것이 무엇일까? 라고 나도 의문을 가졌지만 전쟁이란 육, 해, 공군이 이겨야 이기는 전쟁이지 하늘엔 비행기가 한 대도 안보이지 않는가? 말하자면 북한군은 육지만 점령한 것이지 하늘은 아직 한국의 하늘이지 않는가? 식량이 폭 떨어져서 29일엔 창동에 있는 아버님 친지 집에 잡곡이나 호박이라도 얻으려 하기진 배를 움켜쥐고 어머니와 함께 신작로를 따라 걸어가는데 느닷없이 ‘따 따 따’하는 다발총 소리가 나서 발두렁 사이로 기여가 하늘을 쳐다보니 미군 제트기 서너 대가 어딘가를 향해 폭격을 하는 중이었다. 날쎈 제트기가 다발총에 맞을것 같지는 않았

그 날을 다시 본다

글·그림 김성환

다. 하늘은 아직 한국령이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식량도 못 구하고 돌아와 누워 있는데 7월 초였다. ‘핑 핑’하는 포 소리가 나서 아직도 지상전이 계속되고 있나하고 내다보자 하늘엔 미군 B-29가 유유히 낮게 날고 있고 그 주변엔 대공포가 터지는 게, 마치 솜사탕 수십개가 에워싸고 있는듯 보였다. 영화 같은걸 보면 대공포가 터지는 것은 검은 연기가 터져야 하는데 흰 연기가 터지는 것은 대공포는 아닌 엉성한 소형포 같았다. 아래에서 보기엔 B-29 가까이에서 터지는 것 같아도 B-29에서 보면 까마득히 아래 하늘에서 터지는 게 완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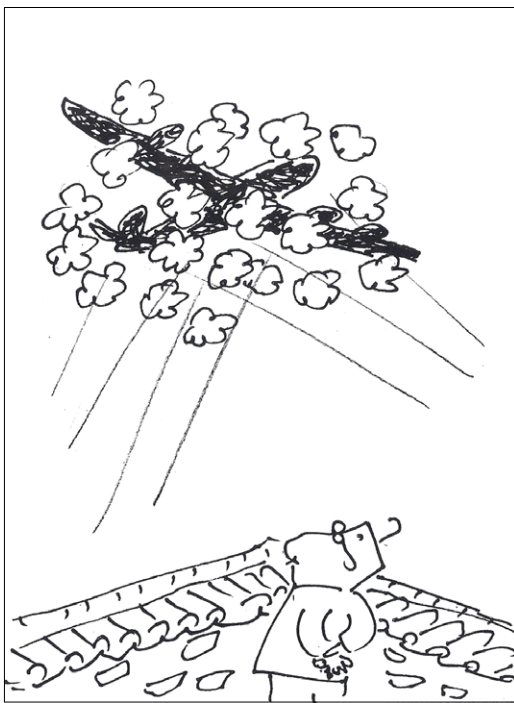
하늘이 유엔군 것이라면 북한군 탱크의 궤멸은 시간 문제 같았다. 대공포가 공격하는걸 알면 재빨리 전투기가 올라가야 하는데 B-29가 저 멀리 사라질 때 까지 북한군 전투기는 씨도 안보였다. 충무로에 있는 아는 사람을 만나 구걸(?) 이라도 해 볼까 하곤 나가 보았더니 만화가 한 사람은 얼른 나를 붙잡고 “니 쌀 배급 탈래?” 하며 끌고 가기에 어느 3층 건물에 들어가 보았더니 미술동맹 지부인 듯 이승만이 쫓겨가고 김일성이 마구 쫓아가거나 하는 그림, 또는 김일성의 특대 초상화들을 그리고 있었다. “난, 생각해 보고 나오겠다”하고 집에 돌아와 다시는 근처에도 안 가기로 마음 먹었었다.

9·28 수복이 되자 그 때에 쌀 배급을 탔던 화가, 만화가들은 거의가 종로 경찰서 유치장 신세들을 졌었다.

나체가 된 시신들

나는 9·28 서울 수복 후 금세 시내로 들어간건 아니고 그 이튿날 시내로 들어가 보았다. 종로 2가 제일은행 앞길엔 들것에 실려 가다 내버려진 시신이 있었는데 놀라운 건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다는 점이다.

출혈과다로 얼굴빛은 백지장이 아니라 아예 하늘색이었고 가슴은 아직까지 불룩 불룩 움푹하고 있었다. 어쩌면 수혈을 하고 응급 조치를 취했다면 살아



날지 모르지만 북한군을 누가 구출하겠는가? 9월30일 해화동 서울여대 정문 앞엔 길거리 쓰레기를 한군데 모아 놓았는데 유탄에 맞아 죽은듯한 소년의 시신이 엎혀 있었는데 알몸이었다. 피가 안 묻은 옷은 아직 쓸만 해서 누군가가 벗겨 간 듯했다.

12월 31일 서울 명동 미도와 백화점 뒤켠엔 어른의 시신이 엎어져 있었고 이 역시 속옷 차림이었다. 12월인지라 겉옷도 입었을 터인데 누군가가 벗겨 간 듯 하다. 요즘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당시엔 겉옷이건 속옷이건 모조리 귀한 것이었고 심지어 소매치기는 싸구려 볼펜이나 안경까지 훔쳐갔다. 시신의 신발이나 구두는 물론 양말까지 벗겨가곤 했다. 돈암동 골목길엔 피란민들이 실레하고 난 대변이 군데군데 있었는데 이걸 거의 다 소화가 안된 밀기울 대변이었다. 가난함은 임금님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지만 굶주림은 공포 그 자체였다. 임진왜란 때엔 수십만 군사들을 먹일 식량은 각자가 조달하라고 풍신수길이 지시했다지만 그야말로 희극이 아닐 수 없다. 당시의 농촌은 큰 규모도 아니었고 난리가 났다 하면 집집마다 식구들 먹을 비상식량을 땅속에 비축해 두었을 터인데 몇 천명이나 만명이 한꺼번에 먹을 식량이 대체 어디에 있던

말인가? 이러한 생각은 몇 백년이 지나도 같았던 것 같다. 2차 대전 때 과달카날을 ‘기아의 섬’이라고도 불렀다. 임진왜란때에도 왜군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걸 풍신수길은 죽기 1년전 쯤부터 알았을 터인데 이 당시의 풍신수길에 대한 일본측 기록은 그 어느 곳에도 한 줄도 안보인다.

정치가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실수를 거의 인정 안하려고 애쓴다는 걸 알 수 있다. 선박만 해도 그렇다. 이순신에 의해 백전백패한 왜군은 자신들의 조총만을 믿은 반면 이순신의 수군은 대포를 쏘았다. 아무리 소형대포라 할지라도 목조선이 당해 낼 리가 없다. 더욱이 일본 배는 속도를 내기 위해 역삼각 형에다 유선형인 반면에 한국 수군은 관옥성 위에 포를 장착했던 관계로 포를 쏘아도 그 진동으로 전복되질 않았다. 조총이나 칼 싸움으로 무조건 돌격만 했으니 견뎌낼 리가 없다. 충성심으로 목숨을 내걸고 돌격만 하면 이긴다는 일본군은 2차 대전 때에 밀립을 파헤치고 돌격해오는 미군 탱크를 잡기 위해 잠복해 있다가 수류탄이나 불붙은 화염병을 들고 뛰어드는 돌격 병을 막고자 미군 탱크들은 기관총 사수를 두 배로 늘려 일본군복만 보이면 사격을 가해왔다. 이에 대해 일본군은 자신을 시체로 가장키 위해 이미 죽은 전우의 배를 갈라 그 내장을 끄집어내어 자기 옷에 둘러대고 죽은 척하고 있다가 탱크가 다가오면 돌격을 하기도 했다니 그 한계는 너무나 뻥하다. 탱크 한 두대는 잡겠으나 대형수송선이나 수륙양용 선박에서 끝없이 밀려 내려오는 적 탱크를 도대체 어떻게 당해낼 수 있을까?

일본군은 정신력만 앞세워 작은 섬을 점령하고 나면 소형 불도저 몇 대로 비행장을 닦는데 두달 이상 다섯달이나 걸렸고 미군은 거대한 중기계 공병부대를 투입, 구멍이 송송 뚫린 두터운 철관을 습지나 초원위에 방바닥 도배하듯 깔아버려 불과 대 엿새 만에 비행장을 닦았으니 당해낼 도리가 있겠는가? 승리를 이끌기 위해 무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그 한계를 금세 드러낸다. 과달카날에서 굶으면서 패퇴를 계속하게 된 일본군은 후퇴란 불명예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전진(轉陣)이란 용어를 내세우고 2만명이 도망을 쳐버렸다. 말하자면 후퇴는 아니고 한 바퀴 돌아서 진격해 간다는 것이다. 해괴한 언어까지 만들어 냈던 것이다. [4]

실향민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다

6·25
64주년



유한준

·본회 회우
·전 한국일보 기자
·시인/아동문학가

현충의 달 6월이 왔다. 6월로 6·25전쟁 64년과 함께 실향민 63년을 맞으면서 망향의 반세기를 꿈길처럼 다시 더듬어본다. 황해도에서 걸어 내려온 이산 피난가족의 막내 세대라 그 단장이 더욱 깊고 쓰리면서 뻗속까지 파고들어 전율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금년 현충의 달, 원호의 달은 세월호 참사 이후라 감회가 더 처연하다.

내 고향은 황해도 제일의 곡창지대 연백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정암-유전 등이 연성대첩의 전공을 세워, 김시민의 진주대첩, 권율의 행주대첩과 함께 육상의 3대 대첩전승지로 꼽히는 곳인데, 3정승을 지낸 백사 이항복이 선조 41년(1608년)에 건립한 연성대첩비가 남아있다. 경의선 개성 옆 토성에서 해주로 가는 토해선 열차가 통과하는 연백군은 면적 935.61㎢, 인구 20만 3600여명, 연안읍과 19개면이 38선을 사이에 두고 살았으나, 지금은 연백군 전체가 휴전선 이북의 북한 땅이다. 이북 5도만 가운데서도 황해도민들, 특히 38선 지역인 연백-해주-웅진지역 이산가족들이 유독 많다. 1·4 후퇴당시 38선 이남 지역 우리고장의 남자들은 공산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임시 피난길에 오른 탓에, 부자(父子) 형제 중심의 이산가족이 대다수다.

휴전 직전의 전환은 1주일 정도면 국군이 북진하면서 38선 지역은 수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지만, 1953년 휴전이 성립되고 고향 땅은 이북으로 묶이면서 돌아갈 수 없는 불귀의 땅이 되고 말았다. 그런 상황에서 임시 피난 나온 청소년들은 지척의 고향 땅을 격강만리(隔江萬里)처럼 바라보며 망향 반세기를 살아왔고, 연로하여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 절반 정도가 작고했다. 남은 세대들도 삶의 종착역으로 다가서고 있다.

망향의 염원을 가슴에 안고 편지 한 장도 못 띄우며 살아온 이산 막내 세대인 필자도 어느새 77살이 됐다. 출향한 인생들은 망각 속에 살다가 죽으면 사체로 귀향한다. 그러나 이산 피난세대는 죽은 뒤의 마지막 선산행마저도 휴전선에 막혔다. 이산가족의 막내 세대들마저 세상을 떠나는 지금, 선대들이 살아온 고향을 안내할 사람, 설명해줄 사람이 점점 줄어들다는데 단장의 절규가 더욱 뼈저리다.

더구나 피난세대의 자녀들은 부모의 고향 땅을 전설의 고장처럼 말로만 들었을 뿐, 그 누구도 밟아보지 못해 선대들의 고향의 정서와 개념이 없고 옅다.

우리는 공산집단의 남침으로 6·25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동족간의 전쟁을 겪으면서 엄청난 살상자와 이산가족이 생겼고 국토가 만신창이 되는 대참극을 겪었다. 지금은 고령이 된 산업역군 세대들이 젊은 시절 피땀으로 일궈낸 눈부신 성장과 초고속 발전의 강렬한 빛으로 국난을 딛고 부국으로 일어섰다. 일부 반정부 선동세력들도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반만년 민족사의 최대 비극인 6·25의 참상을 왜곡하고 1·4후퇴의 처절함도 외면한 채 재앙 국난 때마다 망국적인 악담과 요설(謠舌)로 반정부 반정권을 책동하고 국가의 기반을 흔들고자 광분한다. 후안무치 파렴치, 물염치, 온갖 만행을 일삼는 그들은 이번 세월호 침몰 참사 애도마저 묘하게 악용하면서 흑세무민 나팔을 불어대고 있다. 이제 이땅에서 소멸되어야 할 존재들이다.

아! 내년이면 분단 70년이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국론 분열의 참상과 분란은 이제 종식되고 자유민주통일 국가로 우뚝 서야 한다. 한반도의 남북통일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번영으로 달릴 수 있는 대박 보난자(Bonanza)의 기반 대로이며, 이산 피난세대들이 몽매에도 잊지 못할 망향 회한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다.

이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지식인들, 양식을 갖춘 시민들이 나라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야 하고, 국민 모두가 대오각성 준법질서 의식을 가다듬어야 한다. 정부는 왜도난마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가 시스템의 대개혁을 단행하고, 국가 원력(原力)을 바로 세워 대한민국의 국격을 승화시키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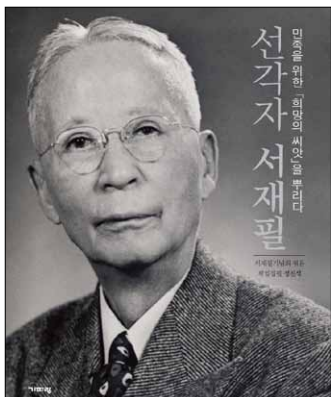
현충의 달 6월, 호국 영령들의 충혼을 추모하면서,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번영과 평화의 축가를 합창할 그날을 준비하는데 총력을 결집하는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무이자 소명이다. [4]

회우들이 펴낸 신간

정진석 명예회우 책임집필 '선각자 서재필'

서재필기념회(회장 안병훈)는 민족 언론의 효시인 '독립신문'을 창간한 언론인이자 개화사상가, 혁명가, 독립운동가, 군인, 의사, 정치가 등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한 근대사의 선각적인 거목인 서재필 선생의 일생을 화보로 엮은 <선각자 서재필>을 출간했다. 서재필 탄신 150주년을 기념하여 펴낸 이 책의 고증과 책임집필은 본회 명예회우 정진석(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교수가 맡았다.

이 책은 서재필 선생이 1864년 1월 7일에 출생하여 1951년 1월 5일 생을 마칠 때까지 역사의 격동기를 헤쳐나갔던 파란만장한 일생을 사진과 함께 유품, 관련문서, 신문기사 등 각종 자료로 엮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찬하였다. 역경에 굴하지 않은 선생의 불요불굴(不撓不屈)의 굳은 의지, 애국 애족 사상, 한국·일본·미국을 오가던 외로운 발자취가 수록되어 있다. 1883년에 선생을 포함한 14명의 청년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게이오의숙(慶應義塾)에서 일본어를 익힌 후, 일본 육군 도야마학교(戸山學校)에서 훈련을 받을 당시의 일본 기록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선생은 훈련생 가운데 유일하게 '사관학술' 훈련생이었고, 나머지 13명은 '하사학술'생이었으며 일본육군의 최신 무기였던 무라다총(村田銃)으로 훈련받은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갑신정변의 실패로 망명 길에 올라 한국인 최초의 미국의사가 되어 귀국, 개화운동을 벌이다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하던 시기, 광복 후 미군정청 최고고문 겸 과도정부 특별의정관 자격으로 활동하던 모습과 하지 중장, 이승만, 김규식, 신익희, 안재홍, 장면 등 정계 거물들의 편지도 수록되었다.

법률상담 해 드립니다

본회 고문 성문용·강병국 변호사

대한언론인회 고문변호사 성문용, 강병국 변호사가 6월부터 본회 회우들의 법률상담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민·형사 사건은 물론 가사, 부동산/경매 파산 회생, 기타 법률관계 전문상담을 원하는 회우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 또는 방문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 사전협의)

성문용 변호사

약력: 서울민사지법판사, 서울 형사지법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무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3-4 길도빌딩305호 밝은 합동법률사무소 (전화:02-594-1600)
휴대전화: 017-264-3907
이메일: smy4412@hanmail.net



성문용 변호사.



강병국 변호사.

강병국 변호사

약력: 경향신문 기자, 법무법인 한민 대표, 법률사무소 율원 대표(현)
사무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903호 법률사무소 율원 (전화:02-521-7796)
휴대전화: 010-8707-4225
이메일: bkkang7@hanmail.net

서재필 선생이 쓴 글들도 함께 실어 그의 사상과 그가 걸어온 행적 연구에 기초가 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글 가운데는 '회고 갑신정변' (동아일보·1935.1.12 게재)을 비롯하여 영문으로 집필한 'What Korea Needs

Most'(The Korean Repository·1896.3 게재)를 포함하여 1920년대에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기고했던 13편의 글은 그가 미국에 있으면서도 조국의 현실을 걱정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4]

韓 - 台灣 20년 앙금 털어낼 때 됐다

24년만에 둘러본 台灣



이성춘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이사·논설위원

(常夏) 지역이어서 단풍이 없어요. 단풍을 보기위해서라도 본토 탈환을 서두를 생각입니다...”

총통부에서 인터뷰한 부친인 장총통에 이어 권력 제2인자인 장경국(蔣經國) 국방부장은 영락없이 복덕방 영감 타이프였지만 본토수복을 얘기할때는 눈에서 광채가 번

초에 서울과 타이베이에 연락사무소(대표부)를 개설했지만 단절과 침묵, 냉랭한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됐다. 단교에 대한 보복이라고 할까. 1997년 대만정부는 원전(原電) 폐기물을 북한에 돈을 주고 넘기는 협상을 한동안 시도해 한국정부와 국민을 자극, 긴장시키기도 했

“한국과 자유중국은 역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형제국가라고 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권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반공자유국가인 한국이 공산체제(중공)과 외교관계를 추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양식과 의리를 굳게 믿습니다...”

1992년 연초부터 중공(당시 일반적 호칭)의 요인들이 잇달아 방한하고 한국-중공과의 수교설(修交說)이 나오자 자유중국(대만)정부는 바짝 긴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교설은 더욱 꼬리를 물었다.

앞의 말은 정식수교 한달 전에 김수기(金樹基) 주한 자유중국대사가 한국 언론계 중진 6·7명을 명동의 대사관저로 초청한 자리에서 “절대로 사실이 아닐것”이라며 역설했던 얘기다.

이미 노태우정부가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수교방침을 정한 사실을 알고 있던 필자로서는 그날 마음이 착잡했다. 대만과 끈끈한 형제국가임은 사실이나 한국으로서는 시대적 대변화도 그렇고 장차 북한문제와 관련, 수교는 어쩔수 없는 추세 아닌가.

다만 정부에 대해 중공 및 대만과의 ‘동시수교’가 최선이고 불연일 경우 대만과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등은 어떠한 형태로든 유지돼야 한다고 역설해온 터였다. 아울러 중공과 수교때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 내지 유감표명을 문서나 성명에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바 있었다.

하지만 혹시나 기회를 놓칠세라 수교를 서둔 정부는 우리측 주장을 관철시키기는커녕 저들의 대국(大國)주의식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음은 두고두고 아쉬운 일이라 하겠다.

즉 “중공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대만은 부속도서라는 것, 대사관의 건물 등 한국에 있는 대만대사관의 모든 재산을 넘기라”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외무부는 1992년 8월18일 대만측에 북경당국과의 수교협상의 급진전 사실을 처음으로 알리고 3일후에는 김수기 대사에게 “24일 수교협정에 가조인(假調印) 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에 대만의 조야(朝野)가 경악하고 분개한 가운데 다음날 첸푸(錢復)외교부장은 박노영(朴魯榮) 한국대사를 불러 강력한 유감표명과 함께 5개항의 최후통첩을 전달했다.

즉 대만정부는 23일자로 한국과 국교를 단절, 단교(斷交)와 관련한 한국의 특사파견을 거부, 한국과 항공협정 무효, 한국에 대한 무역우대조치 취소, 그리고 자동차와 모든 과일류의 수입을 전면금지하겠다는 것이었다. 대만이 한국에 대해 먼저 단교를 선언한 것이다.

그날부터 한동안 한국대사관에는 계속 시위대가 몰려와 ‘한국은 은혜를 짓밟는 배은망덕의 나라’ ‘노태우는 배신자’라고 외치며 계란과 돌을 던져 유리창등 기물을 파손했으며 태극기를 불태우기도 했다.

한국과 대만은 1993년 말과 1994년



대만번영의 상징 101층 빌딩.



기룡의 야외해양공원.

다.

필자가 새삼 대만과의 정치적 외교적인 단절과정을 소개하는 것은 역사는 내일을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오랜만에, 정확하게 24년만에 최근 대만을 둘러보고 왔다. 필자가 이번까지 대만을 방문한 것은 4차례로서 두번은 대만의 초청으로, 한번은 동남아 가는 길에 며칠 체류했었다.

1968년 8월 처음 대만을 방문했을때 수도 타이베이(台北)를 비롯, 기룡(基隆) 타이중(臺中) 타이난(臺南) 카오싱(高雄)등은 조용하고 한적했다. 어디를 가나 우루루하는 포성과 기관총및 헬기 소리가 어우러진 전쟁터인 베트남에서 방금 온 필자에게는 기이하게만 여겨졌다.

당시 대만 곳곳에는 본토를 공산당에게 빼앗긴 장개석총통이 본토수복을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며 써붙인 ‘處變不驚’ 등의 구호들이 걸려있었고 만나는 요인들마다 본토 수복과 모택동일당의 축출을 역설했다.

“작년 가을 김종필공화당의장 초청으로 방한했을때 창덕궁의 단풍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만은 상하

뜩였다.

그후 22년만인 1990년 대만정부 초청으로 다시 가보니 변화의 분위기가 역력했다. 장경국총통이 12년간 재임 끝에 작고한지 2년후인 이때 안팎으로 변화의 바람이 몰아친 것이다. 서구로부터는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공산권이 붕괴됐으며 한국으로부터는 민주화의 열기가 불어온 것이다.

정부와 국민당의 요인들, 지식인들은 은연중에 본토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하는데 비해 대학생등 젊은세대들은 국민당 일당통치의 틀을 완전히 탈피해 자유민주주의의 개화를 열망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작고한 장경국 전 총통이 훌륭한 결단을 내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것 아닌가. 그는 시대적인 변화의 바람을 감지하고 안으로는 당정(黨政)등의 과감한 내정개혁, 계엄령해제, 야당인 민주진보당(약칭 민진당)의 창당허용을 통한 다당제시대를 개막하는 한편 총통의 직선제를 예고했다.

그는 본토-중공에 대한 정책도 완화의 물고를 텄다. 본토에서 밀려나온후 무역·교통·우편교환을 금지한 3불통(不

通)정책과 1979년 미- 중공수교에 반발해 중공과의 일체의 접촉·담판·타협을 금지한 3불정책을 완화한것, 가족상봉을 위한 본토방문의 개시, (1987년 探親法제정) 중공서적의 출판과 판매를 허용한 것이다.

2000년은 대만 민주화의 원년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화민국사상 최초로 총통의 국민직선제를 실시한것, 이때 제1야당의 천수이벤(陳水扁)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국민당은 50여년만에 정권을 내주고 야당이 됐다.

천총통은 취임후 대만의 독립론과 유엔가입론을 제기하여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고수하는 중국이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발끈해 양안(兩岸)관계가 경직되기도 했으나 1993년부터 시작한 중국과 대만의 반(半)관영 교류회의의 지속된 접촉 협의로 양안관계는 극심한 적대에서 지극히 우호적인 이웃으로 날로 변하고 있다.

민진당의 8년 집권후 2008년 총통선거에서 마잉지우(馬英九)후보의 당선으로 국민당은 정권을 탈환했다. 마총통이 취임직후 대만은 독립과 통일을 거론하지않고 무력사용금지를 골자로한 새로운 3불정책을 발표하자 중국은 대환영 했으며 양안관계는 상호방문 관광 허용, 상호 투자증가, 각계간의 활발한 교류등으로 전례없는 황금기를 맞고있는 것이다.

24년만에 찾은 타이베이는 크게 달라져 있었다. 조용하고 한적했던 수도가 고층빌딩의 숲으로, 자동차의 홍수로 어지러운 정도였다. 1950년이래 매년 10월10일 쌍십절 날이면 수십만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역대 총통들이 본토수복을 외치는 연설을 했던 총통부 건물은 빌딩숲에 묻혀 평범한 건물이 되고 말았다.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인 101층 빌딩은 도약적인 발전을 한 대만번영의 상징으로 우뚝 서있었다. 오랜만에 고궁박물관, 용산사, 중정기념관, 기룡의 야외해양공원, 화련의 대로강협곡, 총렬사를 둘러봤다. 곳곳마다 대만인, 본토인, 해외화교, 동남아인, 한국인, 서구인들이 뒤섞인 관광객들로 북적거렸다.

20년전 단교에 따른 감정의 앙금과 배타심으로 응어리졌던 한국-대만관계는 세월이 해빙약(解氷藥)인가, 수년전부터 양국의 민항기 왕래가 재개되고 관광객등 인적 왕래와 교류가 급증했으며 특히 교역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물론 한국은 20년간 다져온 중국과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관계는 더욱 내실있게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대만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과 대만 양국은 상부상조 해야한다.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으로 국경이 무너지는 대변화의 시대를 맞아 지난날의 한때 걸끄러웠던 일들을 모두 잊고 새로운 차원에서 더욱더 긴밀한 교류와 협력 관계를 이룩해 나가야 할것이다. [한글]

인생 2막

함정훈 아시아경제 편집위원

·전 서울신문·국민일보 편집국장

인터뷰 :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 사진 : 이철영 (본보 편집위원)

신문 편집전설 ‘함빠꾸’ 현역

77세, 희수(喜壽). 저승사자가 오면 “염라대왕에게 전하시오. 아직은 이승에서 좀 더 즐기다 가겠다”고. 고령화를 풍자한 가상 우스개다. 그런데 70대 중반에 “인생은 지금부터”라고 외쳐도 우스개가 아닌 ‘사건’이 발생했다. 77세의 퇴역 기자가 언론현장에 복귀하여 화제다. 주인공은 본회 함정훈 사업단장. 지난 4월 10일 아시아경제 편집위원으로 입사, ‘인생 2막’ 무대에 ‘요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편집 전설의 귀환, 70대 함정훈 기자, 아시아경제 편집위원으로 다시 된다.’(아시아경제 4월 10일자) ‘편집에 나이는 없다…계급장 떼고 후배들과 함께 호흡’(기자협회보 5월 7일자) ‘77세 아경 기자 입사, 함정훈 편집위원 언론계 화제로’(미디어 다음 5월 19일자) ‘내 마지막 편집은 내 묘비명…아직 그 제목을 못 달았다.’(중앙일보 5월 19일자) 미디어가 앞 다투어 그의 신기한 행보를 조명했다. LA에서도 반응이 날아왔다. 30년 전 이민 가 소식 끊긴 그의 친구들이 미주 중앙일보를 보고 “야, 그 함정훈이 맞나? 축하한다”며 연이어 전화가 온다는 것. ‘77복귀’가 글로벌 뉴스가 됐다.

화제를 몰고 온 함 단장을 만나러 지난 5월 21일 오후, 충무로 아시아미디어타워 10층 아시아경제 편집국을 찾았다. 그는 모니터 앞에 앉아 이상국 편집 에디터와 제목을 조율하고 있었다. 그와 같이 일하던 때가 생각나 “낯설게 보입니다”고 인사를 건네자 “46분의 1입니다” 그는 가볍게 웃으며 손을 내민다. 편집국 170여 명 가운데 편집 팀(오프라인, 온라인, 미술, 교열)은 46명. 인원이 예상 보다 많아 사세를 짐작케 한다.

●老 기자 25시

석간인 아시아경제는 하루 32~40면 발행. 함 편집위원은 그 가운데 사회·스포츠·피플 등 스트레이트와 유통·부동산 등 전일 제작 간지 등 하루 5~6개 면 편집을 데스크킹 한다. 박종인 편집국장의 “조간 재탕 엄금”, 이상국 에디터의 “맹물 편집 엄금”지침을 염두에 두고 수습 중이라고 겸손해 한다. 이 에디터에게 물었다. “어땠습니까” “저로서야 대선배를 모셨으니 영광”이라고 한다. 한방 찾집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이어갔다.

-채용 면접 때 뭘 물어 보던가요?

“경영진과 편집국장 면접테스트를 받았지요. ‘건강은 어떤가’, ‘현장 떠난지 얼마나 됐느냐’는 질문을 받았습시다. ‘일로 대담을 가름하겠다’고 했죠”

-보수는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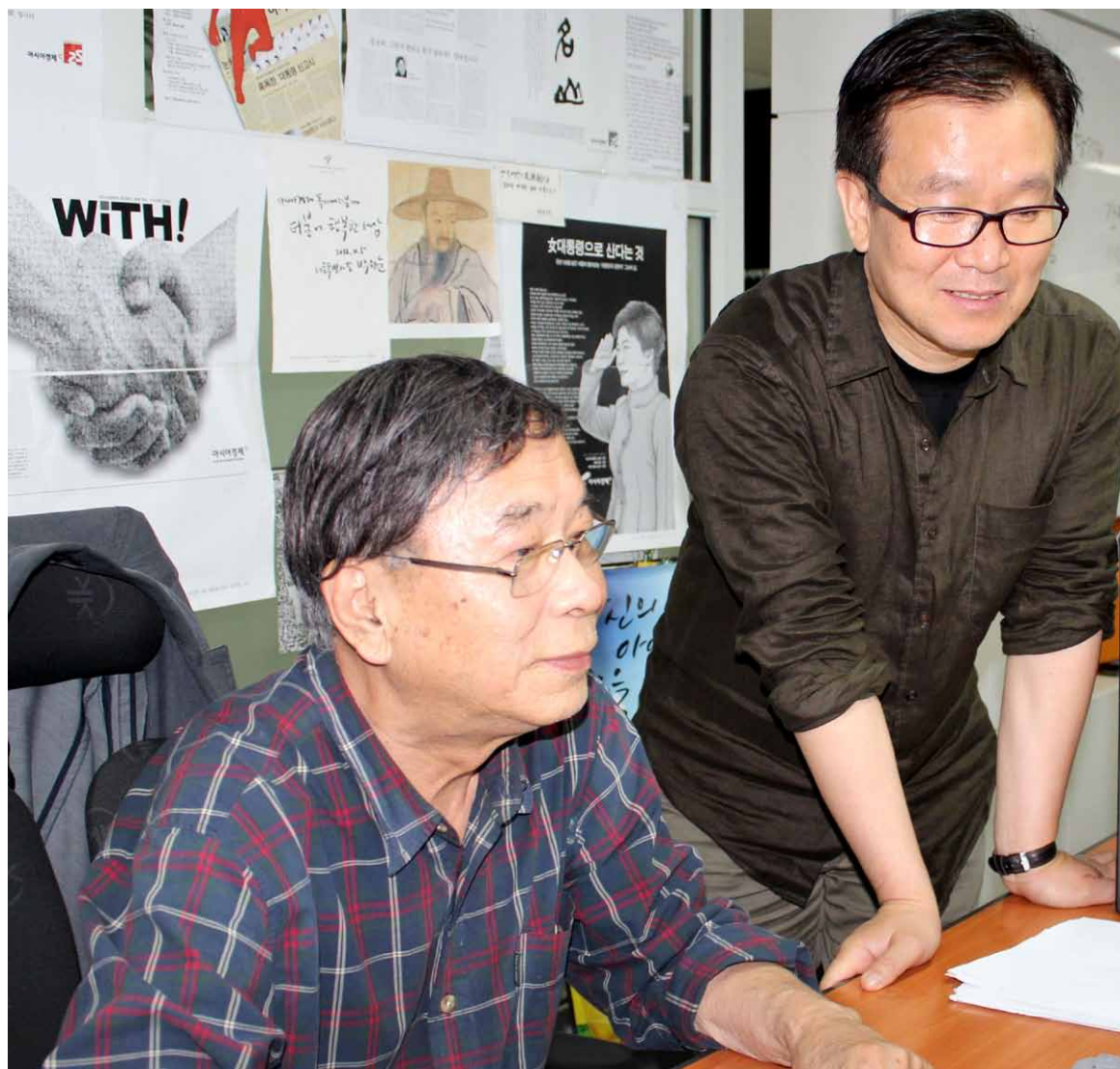
“고용약정에 보수는 비밀로 하라는 문항이 있어서… 과분한 대접이라고 말하고 싶네요”(웃음)

-젊은 후배들의 반응은?

“제가 입사 후배데… 그래서 무척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모니터를 통해 기사를 읽고 제목을 생각한 뒤 ‘온라인 쪽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

다. 시간이 촉박할 땐 편집기자 자리로 찾아가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조율한다. 왕년에 “이것도 제 목이나”고 목청을 높이며 ‘빠꾸’ 시키던 시절과 변해도 너~무 변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술자리에 참석한 국민일보 후배는 “그렇게 사근사근해서야 함빠꾸 색깔이 나겠느냐”고 일침을 놓는다.

“마음은 앞서 가는 데… 차츰 감각을 찾아가는 수습기간”이라는 그는 이상국 에디터에게 고침을 당한다며 웃는다. 함빠꾸가 강적 ‘이빠꾸’에게 빠꾸당하는 격이다. 함빠꾸는 전성기 시절, 후배가 편집해 온 레이아웃이나 제목을 톡하면 ‘퇴짜 놓는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자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이 에디터는 중앙일보 편집기자 시절부터 정곡을 찌르는 제목과 독창적 편집을 해 그의 지면을 눈여겨 봤으며 편집에 대한 열정과 수월성이 부럽다”고 ‘체험담’을 털어놓았



함정훈 아시아경제 편집위원(왼쪽)이 이상국 편집에디터와 제목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신문 - 국민일보 편집국장 역임 ... 아시아경제
“나의 묘비명은 마지막 제목” ... 77세에 새벽출근 5~

다.

-일산서 출근하려면 바쁘시겠어요?

“새벽 4시 30분에 알람을 맞춰 놓지만 긴장 탓인지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깨 더군요.” 새벽 시간은 쏠살 같이 흐른다. 05시37분에 출발하는 경의선 첫 차를 타려고 바쁘게 서두른다. 신록의 향기 묻어나는 새벽 공기는 상쾌하다. 열차에 오르면 좌석은 거의 비어있다. 조간신문은 이 때 읽는다. 서울역서 지하철 4호선으로 환승하여 충무로 편집국에 도착하면 06시 38분. 책상에 아침대용 빵과 우유, 주먹밥이 놓여 있다. 11시 최종 강판시간에 쫓기며 편집과의 전쟁을 치른다. 점심은 회사가 주변 식당과 예약해 놓아 사인만 하면 된다. 오후엔 간지 대장을 보거나 약속이 있는 날은 조기 퇴근을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그만큼 바빠진다.

●파격의 편집

1991년 4월 19일. 당시 석간인 국민

일보 1면 톱 기사. ‘그 파란 물은 검은 死海였다’ 어깨 제목인 부제 아래 주제 제목은 없고 ‘먹판’이다. 신문이 나오자 편집국이 술렁거렸다. “오류 아닌가?” “함빠꾸, 또 하나의 실험인가?”라는 비판과 “과격적이다” “기발하다” “참신하다”는 평가가 엇갈렸다. 독자들도 “인쇄 사고냐” “외부 압력이나”는 확인 전화가 빗발쳤다. 문자 매체가 문자를 포기함으로써 ‘검은 침묵’의 여운이 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은상의 가곡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이 환경오염으로 썩어가자 그가 법대 동기 허남훈 환경부장관과 함께 기획한 마산항 빛깔을 되찾아 주기 캠페인 첫 기사다. 국민일보 창간 편집국장인 그는 강판 직전까지 고민을 했다.

그 이른바 편집 사상 첫 ‘無字 흑판’ 제목 탄생의 배경을 그는 ‘국민일보 20년사’(132~133쪽)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환경을 정화합시다” ‘그 파란 물은 죽었다’ 오염을 정화한다면서 오염된 상투적 제목만 무수히 떠오를 뿐 우선 내가 나를 납득시킬만한 헤드라인이 오리무중이었다. 강판 시간은 다가오는데 물은 언어는 죽어줘야 했다. 나는 거꾸로 가기로 작심했다. 逆발상의 발상,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다. 시커먼 먹판이 1면을 덮었다.〉

그 뒤에도 파격의 편집은 이어졌다. 오리무중에 빠진 학력고사 문제지 도난 사건수사를 다룬 ‘無字 백판’(1992년 1월 30일자), ‘無言 흑판’ 등 파격적 편집은 그의 손을 거쳐 태어났다.

국민일보에서 두 번의 편집국장을 거친 그는 서울신문에서도 편집국장을 거쳤다. 세 차례의 편집국장도 파격이다. 80년대 초 李振義 서울신문 사장은 당시 함정훈 편집부장을 국장으로 전격 발탁했다. 그의 ‘파격’을 인정했다는 후일담이 있다. 함빠꾸의 파격편집 몸짓은 1970년 초 한글 전용 편집으로 기

다시 된다

3

복귀하다



고 있다.

경력사원 입사 6개면 데스크

그 파란물은 검은 死海였다



파격의 편집으로 화제를 끈 국민일보 '無字 흑판'지면.

자협회편집상을 수상하면서 지면을 장식했다. “우리말 제목 달기는 곧 漢字 추방인데 한문을 한글로 글자만 바꾸니 도저히 뜻을 나타낼 수가 없어 아예 문장을 바꿀 수 밖에 없었다”고 회고한다. “파격은 궁여지책의 산물”이라며 쓴웃음을 짓는다. “우리말 소통의 길을 찾다보니 말랑한 일상용어, 구어체를 즐겨 쓰게 되고 다른 신문과의 차별화가 이뤄지더라”고 말한다.

- ‘편집 전설’의 편집이란?

“편집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다면체라 생각합니다. 여러 얼굴을 가진 그 무엇이죠. 그 정답을 찾으려 우리들이 밤샘 토론을 해도 꼬끼리 더듬기 일 것 같네요. 다시 편집현장에 발을 담근 것도 최후의 정답에 다가서려는 발걸음의 일환입니다. 인생도 편집과 마찬가지로 아닌가요. 내 인생의 마지막 편집은 나의 묘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 제목을 달지 못했습니다. 내가 좀 오버 했나요?” 그의 언어는 진언과 현학의 경계를 넘나든다.

●왜 편집인가?

1960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함정훈은 그 해 부산일보 수습기자로 들어갔다. 사회부 기자 초년병 시절, 밤새워 쓴 단독 기사가 실리지 않았다. 편집부 선배에게 따졌다. “레이아웃 끝났다. 그 기사 자리 없다.” “단독 기사면 내일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편집자의 예상로운 대꾸에 그는 화가 났다. “조물 대감이구나. 편집자가 넣으면 뉴스고 안 넣으면 뉴스가 아닌 거구나 싶어 ‘호랑이 굴’로 자청해 들어갔다”고 한다.

편집에 물이 오를 때쯤 5·16쿠데타가 터졌다, 뒤늦게 입대했다. 만기전역을 한 뒤 부산일보에 복직할까 망설이던 차에 대한일보 견습기자 모집공고를 보고 응시, 다시 수습기자로 입사했다. 전공이 배려되어 발령 난 부서는 사회부 법조팀. 朴容來 편집국장에게 “편집을 하고 싶다”고 두 차례 애걸 끝에 편집부에 입성했다.

그는 늘 새로운 편집에 목말랐다. 신생 국민일보가 그를 불렀다. 미친 듯 편집 쿠데타를 도모, 꿈의 한 자락을 펼쳐다 퇴임 후 언론연구원정책연구본부장, 서울언론인클럽부회장, 한국홍보포럼이사장, 환경매일 부회장 등을 지냈다. KMC(국민 미디어 클럽)회장으로 국민일보 퇴직 사우들의 가교역할을 하며 올해 새로 출범한 본회 김은구 회장 체제에서 회장 상담역과 사업단장을 맡았다.

-왜 司試 아닌 言試를 선택했나요?

“정미소를 운영하던 아버지 밑에서 구 남매 중 막내였죠.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큰 형님이 ‘우리 집에도 법관 한 명은 있어야 안 되겠냐’ 하며 담임선생님께 전화하여 법대에 원서를 쓰게 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전공 과목 보다는 ‘文思哲’에 관심이 많아 담장 넘어 문리대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졸업생은 300명인데 사시합격자는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㉘

유산소 운동 치매진행 지연시킨다



이광영

- 본회 논설위원
-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 한국 골든에이지포럼 상임이사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aerobic workouts)은 고령자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의 크기를 증대시키며 이로써 치매로의 진행을 지연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국제학술지 영국 스포츠의학(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은 최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재활의학과 리우 엠브로스(Teresa Liu-Ambrose) 교수 팀의 이 같은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리우 엠브로스 교수 팀은 많은 경우 치매의 전단계가 되는 중등도의 인지기능 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MCI)가 있는 70-80세 여성 86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게하고 뇌의 해마(hippocampus) 크기 변화를 측정하였다. 대상자들은 6개월간 일주일에 두 번, 한 시간 동안 에어로빅 춤(aerobic dance) 또는 빠른 걷기를 하게 하거나 역기나 아령운동, 앉았다 일어나는 등의 근력강화 운동을 하게 하였다. 6개월 동안 운동계획을 완전하게 마친 29명을 대상으로 뇌를 MRI로 촬영하여 처음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유산소운동을 한 그룹에서는 해마 크기가 눈에 띄게 커진 반면 다른 운동을 한 그룹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해마는 뇌의 다른 부위로 신호를

전달하는 중요한 신경섬유이면서 학습과 기억에 관여하며 감정 행동 및 일부 운동을 조절한다. 또한 시상하부(hypothalamus)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해마 크기가 큰 사람은 언어기억(verbal

memory) 능력이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리우 엠브로스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로 볼 때 뇌의 크기와 정신기능과의 관계는 대단히 복잡한 것 같이 보인다면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할 가치가 있는 영역이라고 했다.

리우 엠브로스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소운동은 해마 크기를 크게 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지연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면 앞으로 중등도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유산소운동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학술지 미국 의학회 내과학지(JAMA Internal Medicine)는 2013년 4월 정기적인 운동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낙상을 예방하여 치료비용을 크게 줄여줄 뿐 아니라 요양원에 가야하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핀란드 헬싱키 대학 가정의 파칼라(Kaisu Pitkälä) 교수의 연구결과를 게재한 바 있다. [4]

10명 정도여서 응시해보려는 생각조차 못했다고 한다. “취향은 문사철 쪽인데 다 자질이 어긋난 탓 아니겠느냐”며 웃는다.

-본회 사업단장으로 구상은?

“김은구 회장에게 사의를 밝힌 마당인데... 김 회장은 힘 있는 대한언론인회를 만들자고 했잖아요. 힘이 있으려면 조직 구성도 젊어져야 합니다. ‘대한노인회’라 소리는 거슬립니다. 나도 현역시절 대한언론인회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가입 절차도 몰랐고 권유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년을 앞둔 현역 기자들을 미리 파악, 가입을 권하고 현역 국장급은 ‘준회원’으로 영입하면 대한언론인회가 퇴역과 현역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 최대의 힘 있는 언론인단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함 단장은 “퇴직언론인의 본회 영입 노력 못잖게 역으로 우리도 언론사에 들어가는 쌍방향 교류의 길을 찾아보면 어떨까, 제가 역수출의 첫 주자인 것 같다.”며 그래서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에 더 열정을 가지고 해야겠다.”고 다짐한다는 것. “저비용 고

효율, 우리는 쉬고 있는 잠재 능력을 ‘기부’할 수 있고 경영자는 퇴직기자 노하우를 ‘염가’로 재할용할 수 있으니 공생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한다. “열쇠는 경영자 쪽에 있어요. ‘아시아 경제’처럼 CEO의 파격적인 오픈 마인드가 중요한데...”

함 사업단장은 우리 언론인회 사업 몇 가지를 내놓았다. “대학과 제휴하는 ‘언론 아카데미’를 개설, ‘기자 실무’를 강의하면 언론사 초년병과 재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학교는 학과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 윈윈 아니겠느냐”고 한다. 현재 발행하고 있는 ‘大韓言論’ 외에 차별화된 새로운 위클리나 먼슬리를 만들어 有價로 배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왕년에 한가락 하던 600명의 베테랑들이 다시 펜을 들면 아마 지상 최대의 언론 쇼가 펼쳐질 것”이라며 너털웃음을 터트린다.

80세 老顔으로 태어난 아이가 나이 들수록 젊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 주인공 ‘벤자민 버튼’이 생각한다. 인생 2모작 무대에 올라 인생을 재편집하는老기자 함빠구의 시계는 여전히 빠꾸하고 있다. 치열한 편집현장으로. [4]

범죄자 대신 정부 공격에 열올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국가개조’라는 어젠다 제시 등으로 일단 정치적 수습길로 들어선 모양새다. 그러나 6·4선거에서 세월호 ‘독’을 보려는가, 친노는 원인 규명이나 재발 방지 협력보다 정부 공격에 올인했다. 언론은 ‘전원구조’라는 상징적 오보처럼 들은 대로 전하는 뉴스로 하루 8,000건을 양산해 지탄을 받았다. ‘한부, 한 클릭이라도 더’라는 최루적 ‘감성팔이’ 보도를 접자 과격은 정부로 향했다. ‘기레기(기자 쓰레기)’라는 신조어는 보도의 막장을 증명한다.

침몰의 물리적 원인은 화물 과적과 평형수 부족, 적재물 미결박 등으로 압축되었다. 그러나 이런 살인적 관행을 방지한 청해진해운 사주 유병언 일가에 대해 입을 봉하고 있는 야권의 처사를 공격하는 신문은 드물다. 입법으로 세월호 침몰을 예방할 수 있었던 무능 국회를 비판한 신문도 드물었다.

김한길 새민련 공동대표는 “유병언은 세월호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적, 저임금으로 더러운 부를 축적하다가 304명을 사망·실종시킨 유병언이 본질이 아니라면 2001년 9·11테러의 책임이 오사마 빈 라덴이 아니라 부시 미 대통령에게 있다는 건가.

조선일보는 5월22일 사설 ‘문의원 유시민 씨는 지금 슬픈가, 즐거운가’에서 “두 사람은 세월호 비극을 국민과 함께 슬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의 위기를 즐기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꾸짖었다. 문재인은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라고 강변했고 유시민은 “박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 엄청 죽고...”라는 과거의 미개한 저주를 홍보했다. ‘가카빅엿’의 서기호는 “천벌 받을 대통령”이라고 약담했다. 눈앞에서 죽어간 학생들을 못 구한 정부의 무능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국민의 슬픔을 저주로 둔갑시키는 간악한 정치인들은 자제해야 한다는 신문의 비판이 부족했다.

정치권 커넥션 금금증 못풀어

신문들은 여러 건의 사설에서 유병언 이름을 제목에 쓰며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유병언씨 국민 우롱 중단하고 출두하라’ ‘유병언 일가 검출두 거부 대국민 선전포고다’ (서울),

‘유병언 일가 국민 어떻게 보고 법 집행 거부하나’ (조선), ‘후안무치한 유병언 회장 일가의 소환 불응’ (경향), ‘유병언 일가 신도들 내몰아 법치에 도전하나’ (세계), ‘청해진 해운 유병언 일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동아), ‘유병언과 구원파의 法治 농락,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 (문화), ‘신도 뒤에 숨지도, 희생양 빌미 주지도 말아야’ (한겨레)’ 라고 주장했다.

유병언에게는 정·관·재계의 비호가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다. 수사

신문시평



김명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불명의 가짜 여성 잠수부를 의도적으로 내세워 해경이 구조를 방해하고 있다는 MBN의 황당한 인터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만능의 해난 구조기로 20시간 작업할 수 있다고 유족을 현혹시키고 구조작업에 차질을 준 ‘다이빙 벨’을 과장한 jtbc나 고발뉴스에 제대로 비판을 가하지 못했다. 말만 듣고 검증 없이 옮기는 배달부 언론의 과실에 관대

했다.

유언비어가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이 ‘생존자 아비규환,

유병언 비판않는 정치권 질타 없어 예방책 못세운 국회 책임도 안따져

의 흐름이 새 미리 도주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정황 보도도 나왔다. 동아는 ‘세월호 배후 유병언 비리 당국은 왜 지금까지 눈 감았나’라는 사설을 썼다. 광우병 폭란 때 구원파가 유모차 부대를 동원했다는 설도 있었지만 신문의 취재는 역부족이었다. 대다수 신문들이 청해진 사주의 책임과 체포를 집중 강조한데 반해 정치권은 너무 조용했다.

야당은 유병언을 공격하면 정부에 대한 비판의 칼날이 둔화되어 6·4특표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때문인지, 아니면 풍문대로 어떤 ‘커넥션’이 있기 때문인지의 여부에 대해 신문들은 궁금증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촛불시위와 ‘희망버스’를 타고 어디든 달려가던 사람들이 국민의 공적인 청해진사주의 아지트 금수원 앞에서 왜 시위를 않는지에도 신문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조선일보의 박정훈칼럼이 “국민대체회의는 왜 청와대로만 가려하고 금수원으로는 행진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흥가혜라는 정체

구조요청’이라고 페이스북에 루머를 유포한 것은 비밀번호가 해킹되었기 때문이라는 그의 주장도 신문은 안 따졌다.

유족 클로즈업 사진 심는 상업주의

오열하는 유족, 실신한 유족 사진을 1면에 크게 싣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상업주의도 판쳤다.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돕기는커녕 ‘감성팔이’ 제목으로 슬픈 독자들을 또 울렸다. 이런 식의 재난 보도가 집단적 트라우마에 기여할 것이다. 재난 보도는 상처를 다시 긁는 게 아니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 재발방지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눈물의 확대 재생산이 아니라 슬픔과 분노의 치유다. 분노조절에 실패하는 사회는 마녀사냥이 된다.

유족들의 애끓는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것은 가족이 살아 돌아오는 것, 그 희망도 놓친 유족들은 시신이라도 수습되기를 희망했다. 그런데 성남의 어느 고교 생물 교사는 국정원이 시신을 다 수습하고도 숨겨놓고 있던 말을 수업

중에 하다가 하도 기가 막힌 학생이 캡처한 동영상을 신고해 델미가 잡혔다. 전교조는 ‘너희가 강남에 살아도 이렇게 죽었겠니’라는 악독한 증오와 분열 책동을 펼쳤다. 그들의 영상물은 남한 체제를 흔드는 북한의 대남선전물로 악용된다.

“개혁 대상1호는 국회”여론

초대형 재난에 당황한 목포해경에게 죽음을 무릅쓰는 용기와 사명감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그것이 해체의 수순을 밟는 운명인지 모르지만 필사적인 구조작전은 국민에게 목도되지 못했다.

과연 세월호에서 어떤 구조작전이 필요했고, 그게 가능했는지 짚는 신문은 안 보였다. 세월호 비극의 예고편은 몇 년전 이미 수학여행단을 태운 청해진해운 배의 장시간 표류에서 싹트고 있었으나 언론은 이를 고발 취재하지 못했다. 세월호 사건은 언론도 죽인 것이다. 신문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항상 ‘甲질’을 하는 국회의 입법 나태도 꾸짖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패고 내각총사퇴를 요구한다.

그 국회가 개혁대상 1호라고 믿는 국민들도 많다. 한국경제신문은 4월27일 ‘대한민국 국회는 세월호 조타실과 무엇이 다른가’ 사설에서 “안전도 못 지키며 복지전국 경쟁해온 정치부터 반성하라. 저질 민주주의는 정부 무능력, 법·질서 경시 현상을 부추겼다”라고 정론을 펼쳤다.

헌법학의 권위자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누가 누굴 탓하나. 국회의원도 세월호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해운 안전 관련 법안을 국회가 2~3년간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는 ‘세월호 참사 식물국회 책임도 무겁다’는 글을 문화일보에 기고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는 ‘우리 국회는 어쩌다 엉터리 해운법을 만들었을까’를 심층 보도했다. 권력은 책임을 공유한다. 정치와 국회의원들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 국민을 참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 개조되지 않는 한 어떤 당대표, 원내대표, 의원의 발언도 ‘제2의 세월호’를 막을 수 없는 수사로 머무를 것이다. [2]

조직확대 · 회우늘리기등 협의

본회 기획조정위원회 - 회장단회의

본회 기획조정위원회와 회장단회의가 5월 정례회의를 열어 현안 문제와 발전계획을 심도있게 협의했다.

기획조정위원회는 5월13일 오후 본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사업단에 제시할 주요 사업계획과 회원 늘리기를 비롯한 조직확대 방안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또 퇴직언론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기위한 센서스계획의 구체방안중 일부는 위원들이 선정, 정리

하기로했고 전문적인 부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동추진하기로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회장선거 과열방지책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듣기로했고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회장단회의에 올리기로했다.

이어 5월19일에 열린 회장단회의는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협의, 정리했다.

회장단회의는 이밖에 인터넷신문 창



간문제를 다뤄 사이버위원회에서 만든 보고서를 인보길부회장이 더 검토케했다. 또 금년도 대한언론상 운영문제, 7

월초의 정기감사 문제 등은 13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확정키로했다. [2]

KBS 공영방송 존립기반 흔들

세월호 침몰 참사가 공영방송 KBS의 공영성 위기 문제로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KBS 이사회가 사장 해임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까지 이르렀다.

KBS 이사회 야당 추천 이사 4명은 김환영 사장이 청와대의 뜻대로 보도 방침을 정해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이라며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세월호 보도 관련 문제가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여부로까지 번진 것이다.

KBS 이사회는 28일 장장 9시간의 격론 끝에 표결을 6월 5일 임시 이사회로 미뤘고 제2노조 등 양대 노조는 29일 오전 5시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 방송 파행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심각한 보도 원칙 훼손 문제가 나타나긴 했지만 나름대로 전 역량을 기울여 세월호 침몰에 따른 방송을 열심히 해온 KBS로서는 사태가 엉뚱하게 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 문제로까지 확대돼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KBS의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지난 4월 28일 과학재난부 기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우리 사회 도처에 도사린 안전의식 소홀 문제로 교통사고를 예로 들면서 이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마다 수 백 명씩 인명 피해가 일어나는 교통사고 등 안전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의 말을 한데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 있던 한 기자가 김 국장이 세월호 침몰 참사의 희생자 수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발언을 해 마치 세월호 참사에 따른 희생자 수가 심각하지 않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고 노조에 제보했다.

언론노조 산하인 KBS 제2노조는 이를 다시 언론노조 대변치 미디어오늘에 제보해 미디어오늘이 KBS 보도국장이 세월호 참사를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해 그 비극성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보도했다.

이 보도를 접한 유족들의 마음은 아픔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고 지난 8일 KBS를 항의 방문해서 보도국장 해임과 사장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밤 곧장 청와대로 몰려가서 밤새 농성하는 사태로 번졌다.

김시곤 전 국장은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사사건건 보도본부 독립성을 침해해온 김환영 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해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자 김환영 사장은 청와대 유족 농성장을 찾아가 유족의 아픔을 더한데 대해 사과하고 보도국장의 사임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과 이정현 공보수석이 유족들과 접촉해 유가족들의 요구를 듣고 이를 KBS 측에 전달한 것이 박 정무수석의 새민련 신임 원내대표 예방 자리에서 얘기됨으로써 청와대가 김시곤 전 국장의 사퇴와 김 사장 사과에 개입했다는 것을 기정 사실화했다.

이 모든 상황은 직접적으로 KBS 보

도본부 기자들을 자극해 시한부 제작 거부를 결의한데서 전면 무기한 제작거부로 나타났고 KBS 노조와 제2노조가 사장 퇴진을 주장하면서 파업을 결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하고 파업 돌입 시기만을 노조에 위임해 놓은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보도본부 부장과 팀장 등 보직자들의 보직 사퇴와 제작 거부에 이어 뉴스 진행자의 진행 거부로 이어졌고 이런 움직임은 전국 지방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런 KBS 내부의 요동은 결국 방송

방 송 시 평



오건환

- 본보 편집위원
- 전 KBS 파리총국장
-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도 없이 직접 또는 사장을 통해 청와대로부터의 부탁을 그대로 넘겨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 그 문건을 기자회견과 노조에 넘겼다.

이에 대해 김환영 사장은 누차 사내 방송이나 회견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제작을 거부하고 있는 기자, 부장, 팀장 등의 업무 복귀를 명령하면서 더 이상의 문제 확

대를 막고 방송의 정상화를 호소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사장퇴진여부 둘러싸고 파행거듭 재난방송 매뉴얼도 제대로 안지켜

파행을 가져와 KBS뉴스9를 비롯해서 모든 뉴스가 축소 또는 결방되거나 남녀 더블 앵커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뉴스가 여자 아나운서 단독진행으로 축소, 변형되고 있다. 급기야 파행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이 항의가 이어지고 있고 공영방송의 파행과 독립성, 공영성에 대한 의구심은 수신료 거부운동으로까지 이어져 여당 단독 상정 시비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수신료 인상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까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신료 현실화란 KBS 20여년의 숙원이 엉뚱한데서 좌초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김 전 국장은 물론 노조, 기자협회 등 KBS 내 각 직능 단체와 정치권까지 문제를 확대 재생산해서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행태를 보일 뿐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 방안의 모색이나 궁극적인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 강화 방안 등은 도외시 하고 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김시곤 전 국장이 스스로 밝혔듯이 청와대 등 외부의 압력이라는 것이 예컨대 해경의 사태 수습과정의 실수나 미흡한 점만을 비판해 구조에 사력을 다하는 해경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아달라는 부탁은 관계당국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청와대 홍보나 정무 관계자가 대통령령의 정책이나 통치 행위를 돋보이게 하려는 것은 정당한 업무요 의무사항이다.

문제는 부탁하는 쪽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다. 부탁을 받았더라도 자신의 판단아래 소화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사사건건 그 부탁대로 지시한다면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김 전 국장은 자신은 1년 4개월 동안

사회단체, 학계, 기업 등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라면 KBS는 물론 모든 매체에 접촉해 보도를 부탁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해명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이다.

우리는 이런 업무를 홍보라 부르고 모든 조직은 이 업무를 다루는 별도의 공식적인 조직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다. 청와대가 밝혔듯이 이런 협조요청은 KBS 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에 했던 것이고 편집 책임자나 취재 기자들은 언제나 이런 요청을 받고 있고 이는 중요한 정보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방송의 최고 책임자는 바로 사장에 있다. 때문에 사장이 가장 중요한 방송인 뉴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장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의무인 것이다. 혹 김 전 국장이 주장한대로 전임 사장 중 뉴스 진행표를 보고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는 사장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전 국장이 이 문제를 밝히려면 문제가 발생 했을 즉시 제기했어야지 1년 4개월 동안 묵혔다는 것은 그런 부당한 행위를 스스로 묵인, 감춰왔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문제를 제기할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는 기자회견의 지적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기자를 비롯한 제작 거부에 나선 일선 종사자들도 이번 사태를 KBS의 공영성과 보도의 독립성을 지키는 계기로 삼고 더욱 공정하고 올바른 공영방송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대로 이번 사태가 확대 재생산되는 데는 내부적으로는 보도직과 제작진 등 직종 간 알력이 바탕에 깔려 있는데다 혹 이번 기회에 사장이 교체되면 기회를 잡아보겠다는, 냄새 나는 데는 어디

고 달려드는 쉬파리 같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들쭉시며 어떻게 하든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려는 행위도 엿보이며 덧붙여 야권의 공영방송 흡집 내기에 더해 정파적 입장에 서 있는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저마다 큰 목소리를 내는 데 있다고 본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입만 열면 KBS의 공영성과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주장과 정책에 반하면 일일이 간섭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시위 등 물리력을 동원하는 행위 등이야말로 분명한 정치적 압력의 부당한 행사요 방송의 독립성, 공영성의 침해임을 밝혀둔다.

침몰 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도 아직 세월호의 희생자 가운데 16명이 실종 상태로 있고 유족들은 팽목항에서 아픔을 새기며 시신 발굴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KBS 사태도 세월호 침몰이 빚어낸 일 가운데 하나로 세월호는 침몰부터,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아픔, 반성을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조차 요동치는 사상 초유의 대형 사고이다.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상을 보여주고 있고 사고 발생부터 수습과정, 수사 결과 등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관행, 의식 등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 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이자 우리가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절박감까지 주는 사례이다. 다른 것은 고사하고 방송만 얘기한다.

KBS는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재난구조 주관방송사다.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재난방송의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매뉴얼이 지켜졌다고 보는 시청자가 별로 없다. 다른 방송사와 똑 같이 속보경쟁에 나섰고 결과적으로는 사실 확인 없이 당국의 발표나 제보를 그대로 보도해 오보를 냈다.

당국의 잘못된 발표를 그대로 옮기는 데 급급했고 결과는 수색, 구조 당국의 허둥대는 모습을 중계하는데 불과했다.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과 아픔을 함께 한다는 명분아래 유가족들에게 근접해 애통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선정보도를 일삼았고 억지 인터뷰를 강요하기도 했다.

잠수사의 잠수병 등에 대한 위험도나 현장 사정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이해나 취재 등 사실 확인 없이 총체적인 구조 인력 숫자를 보도해 유가족들의 헛된 기대감을 높여 결과적으로 유족들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고 당국에 대한 불신을 높인 점이나 거짓 전문가나 허황된 아마추어들을 방송에 등장시켜 당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이들 아마추어를 구조에 투입해 결과적으로 구조작업을 방해한 점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릇된 방송을 했다고 평가된다.

차제에 KBS를 비롯한 모든 방송은 재난구조방송에서는 정확한 사실 확인과 사고 수습, 인명 구조가 최우선이고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매뉴얼을 교육하고 되새기는 기회로 삼아 방송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 [4]

월드컵 축구와 국제정치의 力學

4년마다 어김없이 온 세계를 몸살나게 만드는 월드컵이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 까지 브라질에서 열린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자책골을 넣은 콜럼비아 선수는 고국에 돌아가 사살 당하고 말았다.

1970년 멕시코 월드컵의 지역예선 결과가 발단이 되어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전쟁까지 치렀다. 1930년 우루과이에서 치러진 첫 월드컵에서 우루과이가 아르헨티나를 물리치고 우승하자 이 결과에 불만을 품은 아르헨티나 팬들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우루과이 영사관을 습격해 두나라는 국교단절에 들어갔다.

1934년 이탈리아 월드컵은 당시 독재자 무솔리니가 정치적 선전무대로 이용하느라 아르헨티나 선수들을 우격다짐으로 귀화시키고 심판을 매수함으로써 우승을 차지해 ‘최악의 월드컵’으로 불리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나치의 선전무대로 삼아 성공한 히틀러는 1942년 월드컵을 독일에 유치하려고 했으나 자신이 일으킨 2차대전 때문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1962년 칠레는 당시 남미를 휩쓸고 있던 사회주의 혁명을 막기위해 국민들이 열광하는 월드컵을 열었다고도 했다. 1978년 아르헨티나 군사정부는 반정부 움직임을 막고 정권의 안정과 국제사회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월드컵을 열었다. 대회 기간 중 아르헨티나 반군이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안정된 분위기속에서의 관람을 위해 임시 휴전을 제의한 것은 월드컵의 마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최근에는 2006년 독일 월드컵이 독일 통일은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옛 동·서독 국민들 사이의 동질성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대통합을 위해 개최했다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10년 남아프리카 월드컵은 만델라가 촉박했듯이 인종차별을 넘어 남아프리카가 하나로 단결하고 아프리카에서의 첫 월드컵이 아프리카 대륙의 모든 사람들에게 긍지와 희망을 심어주는데 크게 이바지 했다.

축구와 제국주의 물결

19세기 후반 축구는 눈부신 속도로 온세계에 확산 되어 나갔다. 때마침 일어난 제국주의는 축구의 높은 인기

정치적 이용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오늘날의 축구는 영국이 모국이다. 19세기 후반 축구는 영국 본토로부터 식민지, 자치령 그리고 그 주변에 퍼져 나갔다. 세계 각지에 상륙한 영국의 군인, 교사, 상인, 선교사들은 스스로 축구를 즐기고 현지사람들에게도 축구를 가르쳤다. 당시 열강이라 불리던

나라들은 국민들에게 강렬한 국가의식을 심기위해 국민체육에 힘쓰고 있었다. 바로 국가주의체육이다. 특히 근대국가로서 늦게 출발한 독일이나 일본은 병사들의 훈련에 축구를 채택했다. 오늘날 한국군에 널리 퍼져있는 족구도 축구에서 파생한 게임이다. 여러나라에 축구협회가 태어나자 각국 협회의 협력관계 확립과 경기규칙 통일을 위해 1904년 FIFA(국제축구연맹)가 창설됐다.

1차대전과 연결된 축구

1차대전이 터지자 축구는 국민들의 전의양양에 이바지 했다. 영국에서는 FA(축구협회)가 “전쟁에 협력하겠다”고 나섰다. 그라운드는 군사교련장이 되고 축구경기에서는 병사모집이 선전 됐다.

축구장 옆에는 군입대 지원접수소가 마련됐다. 지원병의 반수는 축구를 통한 국가의 부름에 호응해 전선에 나간 사람들이란다. 프로축구선수들도 많이 지원병으로 나가 전사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뒤 리그의 경기수준이 저하됐을 정도였다. 병사들은 볼을 지니고 전선으로 나갔다. 전투의 짬짬이 게임을 즐겼다. 전쟁공포심을 완화 시키는 묘책으로 여기고 사령관들도 축구를 장려했다. 적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가운데 영국의 이스트·살리연대는 피투성이 볼을 차면서 적진을 향해 돌격해 들어갔다.

1914년 12월24일 라이프치히의 독일 제107보병대는 악대를 앞세워 영국군 진지를 방문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했다. 그날 오후 임시휴전을 하고 독일군과 영국군이 축구경기를 치렀다. 다음날 다시 전투에 들어갔다. 영국의 FA(축구협회)는 적십자사와 손을 잡고



고두현

·본회 논설위원
·전 서울신문 국장급 스포츠 기자

전선의 병사들과 포로 수용소에 볼을 보냈다. 포로들이 축구를 즐기자 그 모습을 지켜 본 현지사람들이 축구에 흥미를 가짐으로써 1차대전은 전쟁 기간중에도 축구의 확산에 한 몫을 했다.

남미축구와 월드컵

사망자 1,000만, 부상자 2,000만명에 곳이 파괴되어 쓸데없는 유럽과는 달리

전쟁의 피해가 없었던 남미는 양모와 식용유 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또 다른 타입의 축구를 발전시켰다.

월드컵이 탄생하기전 축구의 공식 세계선수권대회는 올림픽 축구였다. 1차대전이 끝나고 1924년 파리, 1928년 암스테르담의 두 올림픽 축구에서 우루과이가 2연패를 이룩하자 유럽은 깜짝 놀랐다. 힘에 의존하는 유럽축구에서는 못보던 우루과이의 뛰어난 개인기, 현란한 드리블은 가히 예술이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축구에서 ‘세계’는 유럽을 뜻했다. 그러나 이제 축구의 세계는 유럽과 남미가 쌍벽을 이루게 된 것이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멀리 당해왔던 남미가 축구를 통해 그 존재감을 과시 하게 됐다. 1936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축구가 빠지자 FIFA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1930년 우루과이에서 첫대회를 열고 월드컵을 탄생시켰다.

세계를 경악시킨 북한의 체력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북한은 세계적인 강호 이탈리아를 1-0으로 물리쳐 탈락시키고 8강에 올라 세계를 경악시켰다. 북한의 승인은 지칠줄 모르는 막강한 체력이었다. 평균신장 165cm밖에 안되는 단신의 북한팀은 투지, 스피드, 체력으로 우승후보인 이탈리아에게 전반 박두익이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올려 8강진출을 이루었다. 후반 들어서도 북한의 체력이 떨어지지 않자 이탈리아의 주장 파케티는 “북한은 열굴이 비슷 비슷해서 우리들이 알아보지 못할줄 알고 두 팀을 데려와 전반전에 한 팀이 전력을 다해 뛰고 후반전에는

또 다른 한 팀이 나와 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했다고 했다.

대리전쟁으로 치닫는 한·일축구전

일본 아베정권의 우경화는 독도문제, 위안부문제 등을 놓고 우리국민들의 대일감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모든 스포츠, 특히 축구의 한일전은 원하던 원하지 않은 두 나라의 대리전쟁의 성격을 띠게 마련이다.

비록 맞대결이 실현되지 않아도 이번 브라질 월드컵의 성적을 비교해 두 나라 국민들의 사기는 오르내리게 될 것이다. 한국축구가 아시아 최강을 자랑하던 지난날과는 달리 FIFA 랭킹에서는 일본에게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3월31일 대한축구협회에 알아보았더니 등록팀 975개에 등록선수 2만4,930명이란다. 같은 날 국제전화로 일본축구협회에 물어보니 등록팀 2만7429개에 등록선수는 95만3,740명이라는 대답이었다. 인구비례를 감안한다 해도 축구의 저변인구 비교에서 한국은 너무나 뒤지고 있다.

게이오(慶應)대학 정치학 박사과정을 마친 일본의 축구라이터 고토 다케오(後藤健生)는 한국축구의 특징을 소수정예라고 밝혔다. 소질있는 소수의 신인들을 집중적으로 키워내 강팀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수정예는 안정된 저변기반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고토는 한국축구의 약점으로 축구시설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맞는 지적이다. 아무리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축구에 뛰어난 소질을 타고난 민족이라 해도 또 아무리 청소년들이 축구를 하고 싶어해도 볼을 찰 공간이나 시설이 없으면 그들의 꿈을 충족시켜줄 수가 없다. 국민의 애국심, 단결심 그리고 체력강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축구를 즐길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선의의 대리전쟁인 한·일축구전에서 이겨 국민의 사기를 드높여주고 국민 특히 청소년들의 심신강화로 건전한 사회인, 국가안보의 역군을 키워내는데 도움이 된다. 월드컵을 그저 구경거리로만 볼것이 아니라 월드컵을 받치고 있는 바탕을 살피고 단체경기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축구가 우리국민 모두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4]

난청은 노쇠화 때문

노인성 난청은 노화에 따른 청각기관의 노쇠화 현상 때문에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청력감소를 의미한다.

노인성 난청의 유병률 조사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 중 약 30%, 75세 이상 중 약 50%가 노인성 난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오는 증세라며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방치하면 인지기능까지 떨어져 치매위험까지도 매우 높아진다고 한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가족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노인성 난청은 내이나 청신경에 장애가 생길 경우에 오며, 보통 양쪽 귀에 같이 생기고, 대개 높은

건강정보

음이 잘 안 들리고 낮은 음은 들을 수 있으며, 감각신경성 청력 장애로 나타난다.

종종 외이(外耳)나 중이(中耳)에 이상이 있어 소리가 내이(內耳)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전도성 청력 장애로 노인성 난청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증상은 어떤가?

노인들에게서 양측 고주파(고음) 영역에 경도 혹은 중등도의 청력 감소가 나타나며, 소리가 나는 방향을 잘 알지

노인성 난청

못하는 것이 전형적인 증상이다. 노인들은 말소리는 들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남자가 여자보다 낮은 연령에서 시작되고, 진행속도도 2배 정도 빠르며, 특히 고주파 영역의 청력 감소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

치료는 어떻게?

노인성 난청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검진과 함께 청력검사를 해야 한다.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면, 회복은 불

가능하므로, 조기에 발견해 환자가 빨리 보청기를 착용하여 일상생활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귓속형 보청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환자의 관심도, 시력, 보청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경제적 여건, 사회적 활동도에 따라 보청기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최근엔 고도난청 환자에게 인공와우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방방법은?

청각기관의 노쇠화로 일어나는 현상이니 다시 젊어지지 않고서야 난청은

17면으로 이어집니다.

반기문 평화랜드 - 탄금대에서 뜻깊은 하루

대한언론인회 봄철 야외 수련

해마다 봄이면 기다려지는 야외수련, 올해는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 일대에 조성된 이름하여 '반기문평화랜드'로 발길을 옮겼다. 초여름이라기 보다 한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는 더위도 잊은 채 10시 30분경 반기문평화랜드에 도착하니 음성군청 최현상 문화해설사가 반갑게 맞이한다.

20여분 동안 그의 해설을 들으며 반기문이라는 한 인간의 생애와 조상의 내력까지 청산유수같은 이야기가 꼬리를 문다. 충주고 재학 중 외국학생의 미국방문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3학년 때 미국을 방문해 존 F 케네디 당시 미국 대통령을 접견했을 때 장래 희망이 외교관이라고 말했다는 일화로 부터 그의 조상 반석평 웅이 천한 계급이었음에도 모시던 참판의 배려로 과거를 보게 되고 급기야 1507년(中宗2) 식년문과 병과에 급제, 예문관 검열, 경흥부사, 만포진첨절제사, 함경남·북도 병마절도사, 동지중추부사, 형조판서, 좌찬성에 오르는 등 그야말로 승승장구한 집안내력이 흥미롭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많은 지관 풍수지리가들이 이곳을 문턱이 닳도록 찾는 이유가 반기문 생가와 조상 묘소가 명당이기 때문이라니 최첨단 과학시대를 무색케하고도 남을 일이 아닌가.

반기문평화랜드는 음성군이 반기문사무총장의 생가가 있는 마을 1만 459㎡에 사업비 21억 2000만원을 들여 반기문총장 기념 조형물과 유엔본부 상징모형 등으로 조성돼있다. 공원의 중심부에는 분수대를 조성했으며, 넓은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그늘막이 설치된 야외무대와 넓은 잔디밭 공간이 한눈에 들어온다.

다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음성군이 자랑하는 철박문관으로 향했다. 철박문관은 동국제강창업자 상속인들이 출연한 세연문화재단에서 개관한 것으로 철문명의 발자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3,500여평의 부지에 1,000여평 규모의 야외전시장과 400여평 규모의 전시관을 갖추고 있다.



반기문 평화랜드에서 기념촬영.



충주 중앙탑 앞에 선 본회 탐방단.

야외전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집채만 한 전기 용광로를 비롯해 각종 제강설비와 철강반제품 및 완제품이 공정별로 전시돼 있어 눈길을 끈다. 실내 전시장에는 철기 문명의 시작부터 현대 철강산업을 꽃피우기까지 철에 관련된 인류와 우리조상들의 역사를 정리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었고 그로부터 500미터 떨어진 부속 건

물엔 믿기 어렵게도 250년은 족히 되었다는 소나무 분재 등 수십종의 분재들이 묘한 자태를 자랑하며 일행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곤드레 정식으로 점심을 든 우리는 충주 중앙탑과 탄금대 관람으로 오후 일정에 들어갔다. 국보 제6호 중앙탑은 높이 14.5m. 탑이 세워진 중원의 위치가 우리나라 중앙부이므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2층 기단 위에 세워진 7층석탑으로 통일신라시대 석탑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탑이다. 넓은 기단의 위아래 면석에는 우주(隅柱)와 4개의 탕주(撐柱)를 모각했고, 상층 갑석 밑에는 부연(附椽)을 마련했다. 탑의 규모가 커서 하층 탑신부는 여러 장의 석재로 구성했고, 상층부에 해당하는 6·7층

의 옥신석과 옥개석은 각각 하나의 돌로 건조돼 있다.

귀로에 들른 탄금대(彈琴臺), 탄금대는 신라 진흥왕(眞興王) 때(537) 가야국(伽倻國)의 악사 우륵(于勒)이 망명의 한을 달래기 위해 가야금(伽倻琴)을 탔던 곳으로, 임진왜란 때 신립(申楨·1546~1592) 장군이 왜적과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곳이기도 하다. 우륵은 가야국의 멸망을 예측하고 신라에 귀화해서 이곳 절벽 바위를 집으로 삼아 가야금 타는 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한다. 탄금대는 특히 임진왜란 때 팔도순변사 직을 맡았던 신립 장군이 문경새재를 버리고 이 탄금대 강가를 택해 배수진을 치고 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으로 유명하다. 조총으로 무장한 십만명의 왜군에게 팔천명을 이끌고 싸우던 신립 장군과 휘하 장졸들이 모두 전사하는 패전으로 끝나고 만 이곳 탄금대, 현재는 탄금정이라는 정자가 하나 있고, 충혼탑과 감자꽃노래비, 신립장군 순절비, 악성우륵선생 추모비 등이 있다.

강변 경관이 포근하고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가볍게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지만 오르는 계단 길 경사가 심해 많은 회우들이 관람을 포기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탄금대를 뒤로하니

그 옛적 신공이 겪었던 최악의 싸움/우리군사 이 강 언덕에서 그 목숨 다 하였도다/ 반평생을 싸움터에서 끝내는 얻은바 없이/ 한목숨 버림으로 한마음속 서린 사연/새재에 뜬 구름 그 행상 장하기만하고/ (이하 생략)

탄금정 현관에 걸린 시한수가 가슴에 와 닿는다. 덤으로 본 명성황후 생가엔 언젠가 다녀온 적이 있어 생소한 감은 덜했으나 처음 방문한 회우들에게 값진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이번행사는 80명 선착순이었지만 신청한 회우들 전원이 참석할 수 있어 다행이라면 다행, 벌써부터 가을 문화탐방이 기다려진다. [4]

글·정운중 상임이사
사진·이철영 편집위원

16면에서 이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니 안타깝다.

일반적인 난청의 환경적 위험인자(담배, 술, 두부외상, 소음 노출, 이독성 약물 등)를 피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예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난청 극복은 이렇게 인체의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중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나이 들어서는 청각의 퇴화가 우선이다. 그 이유는 잘 듣지 못하면 사람들과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인이 될수록 정보의 습득 창구가 좁아지는데 남의 말마저 제대로 듣지 못

한다면 대화 상대는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면 이야기할 때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70~10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정상 혹은 조금 큰 목소리로 말한다. 주위 소음을 가능한 한 줄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적이고 쉬운 단어를 사용하며, 문장의 끝

에서는 잠시 말을 멈추어 시간을 준다.

장수하는 분 중 소리를 크게 질러야 겨우 알아듣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청력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사람도 있다. 청각을 잘 보호해야 100세 시대에 남들과 어울려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4]

이보길 편집위원

진 카파의 ‘기적의 치유’ 첫 머리에 『뇌의 건강을 지켜주는 은행나무 잎 엑스(extract, essence)』가 실려 있다.

“기억력과 정신 능력의 쇠퇴를 의학적으로는 치매라고 하지만 통상 피할수 없는 가령(加齡·나이를 더함)의 결과로 보고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를 더함에 따라 일어나는 병적인 정신능력의 쇠퇴를 더디게 하는 수단은 없는 것일까? 하잘것 없는 나뭇잎속에 정신능력의 쇠퇴를 치료하는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믿지 않을는지 모르겠다. 그 나무의 이름은 은행나무다. 은행나무의 새싹에 들어 있는 물질이 뇌로 흘러드는 피흐름(血流)을 개선하여 뇌기능을 높이는 뛰어난 치료약이 되고 있다. 기억장애나 이른바 치매로 불리는 일반적인 증상—혈관성 질병과 신경 변성(變性)에 의한 질병에 효과가 있다.”

은행나무잎 추출물이 갖는 뛰어난 약성(藥性)을 적기 전에 은행나무의 신상명세를 알아보자. 은행나무(Ginkgo Biloba)는 은행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교목, 잎은 한 군데서 여러 개가 나고 부채꼴(扇形)에 가운데가 깊게 또는 얇게 찢지고 평행맥(平行脈)이 있다. ‘열핏보면 오리발 처럼 생겼으므로 중국사람은 은행나무를 압각수(鴨脚樹)라 부른다(필자주)’ 자웅이주(雌雄異株·암수가 다른 나무·수나무와 암나무가 있다는 말이다)

수나무와 암나무가 교접(交接)하여 정자를 주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나무는 꽃가루 화분(花粉)을 받아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생식양식(生殖樣式)은 음성배우자(雌性配偶者) 곧 정자(精子)와 자성배우자(雌性配偶者), 곧 난자(卵子)가 만나서 수정하는 태고(太古)적 생식방법을 지금껏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암나무와 떨어져 존재하는 수나무가 공기중에 방출한 화분을 암나무는 화분관(花粉管)속에서 정자로 키워서 그 정자가 난자와 만나서 수정한다는 것인데 나무로서는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생식방법을 처음으로 발견한 학자는 일본 사람이다.

1896년, 백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다. 은행나무가 지구상에 처음 나타나기는 3억년전, 그러니까 은행나무의 생존 역사는 3억년이므로 그 장구한 시간속에서 소행성 충돌, 빙하기를 거쳐 수많은 천재지변을 견디며 얻어진 생명유지기능이 바로 은행나무가 지니고 있는 약성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중국에선 은행나무를 공손수(公孫樹)라고도 하는데 공손은 고귀한 혈통을 일컬음이니 은행나무가 특수하다는 뜻이겠다.

은행나무에는 방충(防蟲)기능이 있어 옛날 사당이나 재실의 현관은 거의가 은행나무인데 백년이 지나도 좀이 슬지 않기 때문이다.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엔 은행나무잎이 오리발처럼 생겼으므로 은행을 압각자(鴨脚子)라고 했다.

꽃은 밤중에 피고 곧장 떨어지므로 사람이 보기 어려우며 열매는 살(거죽)을 벗겨내면 딱딱한 딱지속에 열매가 들어있다. 딱지는 흰빛깔이므로 은행을 백과(白果)라고도 부르는데

새로쓰는 병은 낫는다 <8> 양생법의 뿌리와 열매

진 카파의 먹거리에 의한 기적의 치유 (下)

은행의 딱지에 모(稜)가 세 개면 수(雄) 열매요, 모가 두 개면 암(雌) 열매라는 것이다.

은행을 불에 익혀 먹으면 사람을 돕고 숙식익인(熟食益人), 또한 폐(肺)를 따뜻하게 하고 기(氣)를 돕는다(溫肺益氣)고 했다. 소변양을 줄이며 흐린 오줌을 멎게 한다는데 은행의 딱지는 흰빛이므로 오행(五行)으로는 금(金)에 속하며

따라서 은행의 기운이 폐경(肺經)에 들어 폐의 기운을 돕는다고 했다. 그런데 옛 약물학의 바이블이라는 본초강목에 은행나무잎의 약성(藥性)이 실려있지 않은것은 저자인 이시진이



권도홍

·본회 회우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전 주부생활 부사장

출몰이 모든 식물성 치료약 가운데서 혈관성 질병과 신경 변성(變性)에 의한 뇌질환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증명한다고 진 카파는 말하고 있다.

1950년부터 400편이 넘는 은행나무잎 추출물에 대한 연구 논문이 의학잡지에 발표된바 있다. 그 대부분이 독일의 연구자들에 의한 것이며 임상실험 결과 기억력감퇴(減退), 집중력부실, 피로, 우울, 어지럼, 귀울림, 방심(放心), 착란(錯亂)에 대한 치료효과가 확인된바 있다고 한다.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자주 처방되고 있는 다른 인공합성 약품과 견주

치매예방 은행나무잎 추출물의 위력

그런 사실을 몰랐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은행나무에 대한 학술논문을 역사상 처음으로 쓴 것은 일본인이지만 은행나무잎의 약성을 처음으로 추출해서 혈류개선과 함께 치매를 예방하는 테보닌(Tebonin)이라는 약제를 만들어낸 것은 독일의 슈와베(Schwabe) 회사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각종의 식물이나 동물, 또는 광물성분으로부터 약성이 있는 물질을 추출하여 제품화하던 슈와베사가 1950~60년대에 은행나무잎에 주목하게 된다. 은행나무잎의 전반적인 약성분과 제약과정은 너무 복잡하여 생략하는게 낫겠으나 대표적인 유효성분은 김코라이드 A, B, C, J 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주목할 성분은 김코라이드 B다. 이 성분이 뇌속의 활성산소 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활성산소는 인체내의 아무데서나 발생하며 암을 비롯한 갖가지 질병발생에 간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리레디컬(free radical)의 일종인데 화학물질의 섭취나 운동, 스트레스, 각연, 자외선등에 의해서 몸속에서 발생하여 유전자 등을 상처내며 세포를 사멸(死滅)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이 50을 넘으면 뇌로 흘러드는 혈류량(血流量)이 30%가량 줄어든다는데 이 현상이 이른바 허혈(虛血)이며 허혈이 일어나면 뇌속에 활성산소가 대량발생하여 신경세포가 늙아를 낙엽지듯이 우수수 떨어진다는게 정설로 되어있다.

전문가(연구자)들은 은행나무잎 추

출몰이 모든 식물성 치료약 가운데서 혈관성 질병과 신경 변성(變性)에 의한 뇌질환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증명한다고 진 카파는 말하고 있다. 1950년부터 400편이 넘는 은행나무잎 추출물에 대한 연구 논문이 의학잡지에 발표된바 있다. 그 대부분이 독일의 연구자들에 의한 것이며 임상실험 결과 기억력감퇴(減退), 집중력부실, 피로, 우울, 어지럼, 귀울림, 방심(放心), 착란(錯亂)에 대한 치료효과가 확인된바 있다고 한다.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자주 처방되고 있는 다른 인공합성 약품과 견주어 보아도 어떤 점에서나 은행나무잎 추출물의 효과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은행나무잎 추출물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연구자들이 뇌의 피흐름 부전(不全)에 의한 장애에 처방한 은행나무잎 추출물의 양은 초기의 경우 하루에 120밀리그램, 그 양에서는 부작용이 전혀 없고 하루에 120밀리그램을 복용한 경우 증상의 개선은 통상 4~6주일 뒤라고 한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은행나무잎 추출물의 효능을 검정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1996년 독일에서 발표되었는데 222명의 통원환자를 대상으로한 조사결과 초기에서 중간정도의 알츠하이머 타입의 치매환자와 몇 차례 뇌졸중을 겪은 치매환자에게 은행나무잎 추출물을 복용하게 했으며 나이는 모두 55세 미만이 었다. 6개월 동안 하루에 240밀리그램의 은행나무잎 추출물을 매일 두 번에 나누어 식사 전에 복용하게 한 결과 기억력과 주의(注意)기능이 약 3배나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부작용은 가벼운 속(위장)의 부조(不調)나 두통 등이 있다고 한다. 은행나무잎 추출물은 강력한 항산화(Anti oxidant·抗酸化)작용을 지니고 있다. 그 작용에 의해서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지키고 뇌세포의 기능 부전을 포함한 모든 정신적인 붕괴의 소인(素因·근본이 되는 원인)을 줄인다.

은행나무잎에 들어있는 약리적(藥理的)활성을 지닌 김코라이드는 은행나무의 새싹과 뿌리에만 존재하는 물

질이다. 김코라이드 작용의 하나는 피속의 혈소판(血小板)의 응집을 억제해서 피가 끈끈하게 되지 않게끔 함으로써 굳어진 피의 덩어리, 곧 혈전(血栓)이 혈관을 막는 리스크를 줄이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나무잎 추출물에는 염증을 억제하여 상처난 혈관(동맥)을 보호하는 기능도 밝혀지고 있다.

진 카파는 기억의 장애를 경험한 모든 사람은 기억의 상실과 치매에의 점진적인 감퇴를 멎게하는 방법으로 은행나무잎 추출물의 섭취를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권하고 있다. 40~50대에 기억력에 문제를 지닌 사람은 상당한 비율로 5년에서 10년뒤엔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고, 60~70대에 기억력에 문제를 지닌 사람도 꽤 높은 비율로 5년에서 10년뒤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일어나는 치매증은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성의 경우와 알츠하이머가 압도적으로 많다. 최초의 징후는 기억력의 쇠퇴와 혼란, 그리고 인격의 변화 등이다. 더 심해지면 편집병(偏執病·paranoia·망상을 고집하는 정신질환), 우울증 등이 발증하게 된다.

기억력에 최초의 병적징후가 나타났을 때부터 은행나무잎 추출물을 복용하는게 좋다고 진 카파는 뉴욕의 신경정신병 학자인 닥터트루먼·M·아이티르의 말을 들어 권하고 있다.

닥터 아이티르는 중증의 기억장애를 지닌 300명의 환자에 대한 실험결과로 은행나무잎 추출물의 약리작용에 대하여 보고한바 있는데 노화에 따른 기억상실, 치매증,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은 멎거나 멎지 않은 경우에도 진행속도가 슬로 다운 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아이티르 박사는 뉴욕대학교 메디컬센터의 정신병학 교수이며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와 예방및 진단에 관해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은행나무잎 추출물은 약품이기도 하고 건강보조식품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입할 수 없으나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는 처방없이 살 수 있는 건강보조 식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SK제약의 기넥신(Ginexin) 80밀리그램과 목산제약의 징코민(Gingkomin) 120밀리그램이 있고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다. [4]

*2011~2012년 19회에 걸쳐 ‘병은 낫는다’라는 주제로 썼던 연재물에 치매이야기가 들어있으나 그것은 예방책이 아니라 ‘치매이야기 였으므로 11, 12, 13 3회에 걸쳐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을 되도록 상세히 쓰겠다. 오래 살면 누구도 치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溫故知新

우리땅의 불가사의와 신비경



황원갑

·본회 회우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예전에 비해 해외여행이 보편화되자 우리나라를 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이 늘어난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중국대륙과 일본열도 사이에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그나마 남북 분단으로 반 동강이 났지만 그래도 우리 국토는 넓다. 필자는 40년이 넘도록 작가와 기자 생활을 통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 주로 역사의 현장을 답사하며 선현들의 학문과 예술과 군사적 업적, 풍류의 멋과 슬기, 웅장한 기개가 서린 유적과 유허를 취재하고, 역사적 사건을 재조명하여 역사소설과 역사칼럼을 집필하고 역사적 명인들의 일대기를 저술했는데, 언론사는 10여 년 전에 떠났지만 아직도 국토의 편답은 멈추지 않고 있다. 김삿갓의 방랑생활 35년보다 더 긴 40년이 넘도록 나라 안팎을 돌아다녔지만 그래도 못 가본 곳이 더 많고, 아직도 쓸 것이 남았기 때문이다.

김삿갓이 강원도 영월에서 방랑을 떠난 것은 22세 때였다. 그는 57세로 전남 화순에서 세상을 뜨기까지 35년간 풍자와 해학과 기지와 전설을 남기며 방랑곡곡을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김삿갓의 일생을 추적하다 보니 그는 금강산은 해마다 봄·가을로 찾았어도 백두산은 먼발치에서 보기만 하고 올라보지 못했다고 탄식한 시를 남겼다. 필자는 다행히 백두산 정상과 천지에도 올라가 보았고, 비록 제한이 따르기는 했지만 금강산도 가보았다. 그래도 여전히 국토는 넓고 가볼 곳은 많다. 특히 현대과학의 힘으로도 아직까지 속 시원히 규명되지 않고 있는 불가사의한 곳, 신비로운 곳이 전국에 산재한다.

경남 밀양시 무안면의 표충비는 ‘사명대사비’라고도 부른다. 이 비는 나라에 큰일이 날 때마다 ‘땀을 흘리는’ 이적을 보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영조 때 사명대사의 공훈과 유덕을 기리고자 그의 고향인 무안면에 세운 이 비석은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3·1독립운동, 8·15광복, 6·25전쟁, 4·19혁명, 5·16쿠데타, 10·26사건, 12·12쿠데타, IMF사태 등 역사적 대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적게는 한 말 안팎에서 많게는 일곱 말에 이르는 땀을 비 오듯 흘렸다고 전한다. 그런데 이처럼 땀을 흘리는 불가사의한 비석은 표충비 말고 또 있다.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을 거둔 승리의 바다 울돌목이 내려다보이는 충무사에 모셔진 명량대첩비이다. 숙종 때 세워진 이 비석도 6·25전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나라에 비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진땀을 흘렸다고 전해온다.

해마다 ‘살이 찌는’ 불가사의한 부도도 있다. 전북 완주군 용진면 서방산 봉서사에는 서민과 애환을 함께 하며 술한 전설을 남긴 조선 중기의 고승 진묵대사의 부도가 있는데, 주지 서남수스님이 6·25때 파괴된 부도의 파편들을 모아 복원한 1980년대 이후 해마다 수cm씩 ‘살이 찌는’ 이적을 보인다고 한다. 비슷한 현상으로 땀 흘리는 미륵불과 소리 내는 나무들도 있다. 땀 흘리는 미륵불은 충남 논산시 은진면 반야산 관촉사의 유명한 은진미륵이다. 고려 초에 만들어진 이 미륵불은 국난이 있을 때마다 온몸에서 땀을 흘렸는데, 그때 손에 든 쇠뿔의 빛깔도 탁하게 변했다고 전한다.

소리 내는 나무들 가운데 가장 이름난 것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의 은행나무 공손수다. 의상대사가 짊던 지팡이가 자랐다고도 하고, 마의태자가 금강산으로 가다가 심었다고도 전하는 이 공손수는 수령이 1,300년으로 추정되며, 옛날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려고 톱을 댔더니 그 자리에서 피가 쏟아지고 마른하늘에서 갑자기 천둥번개가 쳤다고 한다. 1919년 고종이 세상을 뜨자 큰 가지 하나가 부러진 공손수는 그 뒤에도 8·15광복, 6·25전쟁, 4·9혁명, 5·16쿠데타 등 나라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황소울음 같은 소리를 냈다고 전해온다.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 진악산 보석사 입구의 은행나무도 나이가 1,000살이 넘었다. 이 나무는 신라 헌강왕 때에 조구대사가 보석사를 창건하고 제자 5명과 함께 6바라밀을 상징하여 은행나무 여섯 그루를 심었는데, 그 나무들이 자라면서 하나로 합쳐져 오늘날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이 나무도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마치 살아 있는 동물과 같은 울음소리를 쫓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4시간 동안 내는데, 6·25전쟁 전해인 1949년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당하던 1979년,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1980년, 그리고 금산 지방에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에 울음소리를 냈다고 한다.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 중턱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로 알려진 주목 4,000여 그루가 군락하고 있다. 오래된 주목의 나이는 수천 살로 추정되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주목은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란 말도 있듯이 각종 질병에 약효도 탁월한 신비의 나무, 영험한 나무다. 100년 이상된 주목의 줄기를 달여 먹고 간암·위암·자궁암 환자가 완치했다는 설도 있는데, 독성이 강하므로 꼭 껍질을 까지 않은 날계란과 함께 달여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한다.

전북 진안군의 마이산과 탐사도 불가사의한 곳이다. 암마이봉(673m)과 수마이봉(667m) 두 개의 봉우리가 이름 그대로 말의 두 귀처럼 나란히 솟아오른 마이산은 산 자체가 흙 한줌 없는 거대한 수성암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또 정상부에는 7,000만 년 전에 서식했던 민물고기와 조개류의 화석이 발견되어 이 일대가 당시에는 강바닥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오래 전에 어떤 외국인이 와서 보고 “이 많은 콘크리트는 어떻게 조달했고, 무슨 공법으로 쌓아올렸느냐?”고 물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일도 있다고 전한다.

마이산 계곡의 탐사도 신비경이다. 암마이봉 안쪽 계곡에 80여 기의 정교하고 단단하게 쌓아올린 돌탑 무리가 있는데, 작은 것은 3, 4m, 큰 것은 20m에 이르며, 이는 모두 근세의 이인 이갑룡 처사가 1884년부터 1914년까지 30년간 오로지 자신의 맨손으로 쌓아올렸다고 한다. 본래 108기를 만들었지만 무분별한 관광객들 탓에 20여 기는 훼손되고 지금은 80여 기만 남았지만, 아무리 심한 풍우에도 약간 흔들리기만 하지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하니 얼마나 신기한가. 또한 마이산 탐사의 돌탑 앞에서 겨울에 정한수를 떠놓고 정성껏 기도를 하면 고드름이 그릇 위로 솟아오르는데,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은 현대과학의 힘으로도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고 있다.

경남 남해 금산 정상부에 보리암이 있다. 양양 낙산사, 강화 보문사, 여수 향일암과 더불어 우리나라 4대 관음도량으로 알려진 곳인데, 이 절 앞에 서 있는 삼층석탑도 불가사의한 내력을 지니고 있다. 가락국 시조 김수로대왕의 부인 허황옥 황후가 아유타국에서 올 때 승려인 오빠 장유화상이 가지고 온 석탑이라고 전하지만 조성 양식은 고려시대 수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신기한 현상은 이 탑 앞에 나침반을 놓으면 N극이 북쪽이 아니라 남쪽을 가리킨다는 사실이다.

전남 화순군 도암면 천불산 운주사의 천불천탑도 불가사의한 신비경으로 꼽힌다. 학자들의 연구로는 11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천불산 기슭과 운주사 골짜기에 지금은 80여 구의 석불과 19기의 석탑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천불천탑은 신라 말의 도승 도선국사가 하룻밤 새 신통력을 발휘하여 조성했다는 전설이 있다. 또 석불 가운데 와불이 일어나는 날은 천지개벽이 된다는 전설도 있다. 어쨌든 조각 수법이 우리나라 전통 불상·불탑과 다른 모양의 이 운주사 천불천탑도 불가사의한 곳이다.

경남 합천군 가야산 해인사에 가면 국보 제32호인 유명한 팔만대장경이 국보 제52호인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다. 종묘와 창덕궁, 석굴암과 불국사, 수원 화성 등과 더불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이 대장경과 장경각도 불가사의한 유물·유적이다. 이 팔만대장경이 왜 불가사의한가 하면 총 1496종 6,568권 8만1,258판 5,200만자의 방대한 판각에 단 한자의 오자나 탈자도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장경각은 그동안 술한 전

란과 병화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불탄 적이 없었으며, 오랜 세월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판본이 뒤틀리거나 썩는 일도 없다는 점이다.

충남 논산시 연산읍 개태사는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정벌하고 삼한통일의 대업 완수를 기념하기 위해 창건했다고도 하고, 견훤왕이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탓에 자신이 세운 후백제가 멸망한 것을 보고 통분하다가 등창이 나서 죽은 곳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절에 있는 너비 3m, 높이 1m의 무쇠솥은 만든지 이미 1,00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녹이 슬지 않고 있으니 이 또한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하겠다.

우리 땅의 불가사의와 불가해한 신비경은 일일이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따라서 어찌 감히 우리 땅을 비좁고 답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샘이 있고, 아무리 무더워도 얼음이 어는 얼음골도 있다. 마르지 않는 샘은 부산 금정산 금샘, 충북 단양군 도락산 신선봉, 전남 영암군 월출산 구정봉, 경남 함천 가야산, 서울 북한산 황봉 등에 있다.

흔히 남근석·여근석이나 기자석으로 부르는 성석은 전국 대부분의 고을에 있다. 돌이 아닌 오래된 나무가 여근의 모습을 한 것도 많다. 이 가운데 두 가지만 소개한다.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의 신복사터에 가면 마치 여성의 성기와 흡사한 바위가 있다. 그런데 더욱 기묘한 것은 그 바위 한가운데에 마치 남성의 성기처럼 굵은 소나무 한 그루가 매우 선전적으로 박혀 있다는 사실이다.

또 한 군데는 강원도 정선군 북면 나전리에 있다. 이 성석은 누워 있는 여근석인 구멍바위 곁에 남근석인 거북바위가 마치 서방이라도 되는 듯 엮여 있는데, 짓곳은 마을 총각들이 막대기로 구멍바위를 휘젓고 쭈셔대면 마을 여자들이 바람이 난다는 속설 때문에 평소에는 늘 흙으로 매워놓고 있다.

어디 가볼만한 곳이 이런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곳뿐인가. 우리 역사가 오천년이나 되는 만큼 민족의 영광과 고난이 서린 수많은 사적지가 전국 각지에 산재하지 않은가. 민족사를 빛낸 선현들의 유적과 유허가 많지만 걸핏하면 해외로 나돌아 다니며 골프관광이다 보신관광이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참으로 딱하고 안타깝다.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나 백제 망국의 비극이 서린 부여를 가본 사람은 많지만, 이차돈의 순교지 백률사나 그곳에서 출토된 순교공양석당이 국립경주 박물관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또 계백이 오천결사대를 이끌고 김유신의 오만대군과 맞서 4전 4승했으나 결국 중과부적·역부족으로 장렬히 전사한 황산벌과 인근의 계백장군묘를 찾아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뿐만 아니다. 강원도 영월 하면 동강이나 장릉, 청령포는 알아도 방랑시인 김삿갓이 숨어살던 집터와 묘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물론 찾아가본 사람은 더욱 드물 것이다. 아산 영인면에 가면 토정 이지함이 아산현감으로 있으면서 걸인들을 모아 자립갱생의 의지를 심어주던 새마을운동의 선구적 현장인 걸인청 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도 많지 않다. [국문]

삼가 명복을 빕니다

한동원 원로회우 별세

한동원 원로회우가 5월 3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고인은 1932년 11월 8일 함경남도 정평군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유년기를 보냈으며 대학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일본 도쿄대 대학원 신문학과를 수료했다.



1959년 부산일보 사회부기자를 시작으로 언론계와 인연을 맺은 고인은 부산일보 서울지사 취재부장, 서울신문 정치부장, 경제부장, 편집부국장 겸 북한부장 외신부장을 두루 거쳤다.

현업에서 물러난 뒤엔 한국언론중재위원회 초대 사무총장, 언론중재위원, 한국언론연구원장, 대한언론인회 자격심사위원장, 이사,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언론인회는 발인 하루 전인 5월 8일 오후 4시 신우식 고문, 홍원기 명예회장, 김은구회장을 비롯한 많은 간부진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인장(추도식)을 갖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2]



한동원 회우 빈소에서 조사를 읽는 신우식 본회 고문.

김영택 회우 별세

김영택 회우가 5월 20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1936년 12월 13일 전남 함평에서 출생,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로 입사해 제2사회부장, 출판국 여성동아부장, 기획실 기획위원을 역임했다.



언론계를 떠난 고인은 국민대 대학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연구>로 문학박사학위를 받는 한 편 4권의 관련저서와 많은 논문을 발표한 5·18학계의 권위자로 널리 알려져 왔다. 국민대 겸임교수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면서 함평양민학살등의 진실규명에도 크게 기여했다. 현직기자 당시 메모했던 5·18취재수첩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대한언론인회에서는 5월 21일 오전 10시 김은구 회장을 비롯한 회원다수가 참석한가운데 추도식을 갖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2]



김영택 회우 빈소에서 신광연 회우가 조사를 읽고 있다.

황봉구 회우 별세

황봉구 회우가 지난 5월 17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고인은 1939년 4월 19일 경북 상주에서 출생, 연세대 영어영문학과와 미국 미주리대 대학원을 수료한 뒤 경희대대학원에서 박사학위(신문방송학)를 받았다.

1964년 동화통신 외신부기자로 언론계에 진출하여 정치부기자, 월남특파원, 외신부 차장, 정치부차장, KBS 외신부장, 홍콩특파원, 강릉방송국장, 해설위원, 라디오정보센터 편집위원,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객원교수, 경운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숭실대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대한언론인회에서는 발인 직전 연락을 받고 김은구 회장과 정운종 상임이사가 조문했다. [2]



황봉구 회우 빈소에서 김은구 본회 회장이 조문하고 있다.

한동원 형 영전에

신우식(본회 고문)

병석에 누워계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이 무슨 비보(悲報)입니까? 80고개를 겨우 넘기고 가셨으니 이 100세 시대에 너무나 애통합니다.

韓형과 태평로에서 맺은 인연은 40년이 넘습니다. 1959년 부산일보에서 언론계에 몸담은 韓형을 1967년 서울신문에서 만났습니다. 정치부장 경제부장 북한부장 외신부장 등 편집국의 중요한 부서는 다 거치셨고 편집부국장으로 서울신문을 떠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만남은 韓형이 언론중재위원회 초대 사무총장일때 저는 언론중재위원으로 프레스센터 건물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만남은 제가 한국언론연구원장 자리를 공교롭게도 韓형에게 물려준 격이 되었습니다. 제가 4대, 韓형이 5대 한국언론연구원장을 지내셨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만남은 대한언론인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제12대 대한언론인회 회장으로 있을 때 당시 이사로 계시던 韓형을 부회장으로 모신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만남은 네 차례나 이루어졌습니다. 돌이켜 보니 韓형은 지나치리 만큼 원칙과 기본에 철저하셨습니다. 고인의 영전에서 ‘지나치리만큼’

이란 표현을 써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병상에 누워서도 대한언론인회 연회비를 어김없이 내셨습니다. 적지 않은 회원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납’이 더러 있습니다만 韓형은 ‘완납’입니다. 제 집이 평창동 쪽이라 한동안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에서 韓형을 자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무렵 韓형은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 이북5도청에 자주 들르는 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韓형은 함경남도 정평(定平)군민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대한언론인회보 1998년 4월1일자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내의 유화전을 알린다는 것이 어쩐지 쑥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첫 번째로 갖는 개인전이기에 이렇게 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韓형은 이렇게 할 말은 다 하면서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겸손까지 빼놓지 않는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서양화가인 미망인 하귀선(재정)여사는 여러 공모전·초대전에 출품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둔 다복한 일가(一家)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고향땅을 멀리 바라보는 동화경 모공원에서 편히 잠드시옵소서.

삼가 명복을 빕니다. [2]

김영택 형을 추모함

신광연(본회 회우·전 동아일보 사회2부장)

철없고 버릇없던 이 못난 후배를 그처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영택 선배님! 어쩌면 이다지도 허무하게 그 값진 삶을 내려놓고 마셨습니다. 형의 열정만큼이나 빨갛던 모란꽃이 한참 아름답더니 오색 장미꽃이 화사하기 그지없는 이 5월을 뒤로하고, 다시는 볼 수 없는 저 마나 먼 곳으로 떠나려 하십니까! 그처럼 사랑해 마지않아 온 5월의 광주를 어찌 잊으려 떠나시는 것입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문후도 살피지 못해온 저의 불민이 그저 죄스럽고 부끄러워 낯을 들기가 어렵기 한량없습니다.

회고컨대 66년 가을 남녘땅 광주에서 동아일보 1년차 후배로 형을 처음 만나면서부터 반세기가 다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세간의 불의와 부조리에 결연히 맞서도록 용기와 힘을 실어주신 그 은공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갚아드릴 틈새마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 80년 제가 형과 함께 직장을 잃고 방황하던 시절 선배는 틈틈이 저를 찾아 약주를 사주시며 좋은 시절이 언젠가 오지 않겠느냐며 위로하고 격려해주시지 않았던가요!

어둠이 깊었던 유신시절 민주화의 열망이 언제쯤 이루어지나 더불어 고뇌하고 해를 이어 끓이지 않았던 갖가지 재

난의 현장을 찾아 참담했던 민생의 터전을 함께 누비며 동고동락하였던 시절이 엇그제만 같은데 이제는 유명을 달리하는 이 아픔을 어찌 감당하라하시는지요.

80년 5월의 그날 아침나절 시위에 나서려던 용봉동 대학생들에게 몰매를 퍼부었던 얼룩무늬 유니폼들이 오후엔 금남로에 진출하여 귀가를 독촉하는 경고방송을 하는 등 마는 등 떠벌이고는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대검을 쏜 총대와 묵직한 진압봉을 휘두르던 살 풍경은 말 그대로 목불인견이 아니었던가요.

그로부터 사흘 뒤 오후 1시. 형은 도청정문 앞에 도열해 있던 부대원들이 애국가 앰프방송을 신호삼아 대치해있던 젊은이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하던 현장을 빙발 선 눈으로 지켜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셨지요. 그 아흐레 뒤 한때 철수했던 군 병력이 시내로 재진입하여 다시금 만행을 자행하기까지 형은 밤낮 없이 현장을 돌며 취재수첩에 촘촘히 기록해 두셨지요. 그리하여 훗날 이 생생한 기록은 광주민주화운동의 귀중한 역사물이 되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이르렀지요.

스스로 즐겨 어깨에 매셨던 무거운 이승의 짐들을 이제 훌훌 털어버리시고 길이 명복을 누리십시오. [2]

원자력은 만약의 경우까지 철저하게 대비합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중 가장 저렴하고 경제적인 원자력 에너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꼭 필요하기에 -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까지 생각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부품 하나하나에 대한 철저한 안정성 검증을 통해
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원자력이 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회우동정

가나다순

‘박근혜대통령 취임 1주년’ 특강



곽찬호(민주평통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원로회우= 지난 4월 15일 서울 성동구 보훈회관 회의실에서 성동구 보훈단체 간부 9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대통령 취임 1주년’ 주제로 특강.

크로아티아등 4개국 여행



김 현(여행 연출가)회우= 5월 24일 명동예술극장에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문학산책 청류회 회원들과 연극 ‘줄리어스 시저’를 관람하고 5월 27일부터 8일간 역시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HYUNS TRAVEL CLUB 회원들과 발칸반도의 크로아티아를 비롯한 4개국을 여행.

‘세월호’ 관련 인터뷰



남재희(전 노동부장관)원로회우= 경향신문 5월 9일자 1면 머리 인터뷰 기사에서 ‘국가개조론 무책임, 교주적 통치 행태 바뀌야’ 한다고 주장.

해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환영식



박기정(함경북도 지사·전 한국언론재단 이사장)회우= 5월 13일 이북 5도청에서 열린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환영식을 가진데 이어 15일 저녁엔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국외 함북도민 방문단을 위한 만찬을 주최

서양화 전시회



문준철(전 내외경제 편집국장)원로회우= 성남 시청 신청사 2층 갤러리에서 6월 2일(월)부터 8일(일)까지(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서울 인사동 조형 갤러리에서 6월 11일(수)부터 17일(화)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서양화 전시회를 갖는다.

가천대 석좌교수



손일근(전 한국일보 상임고문)원로회우= 최근 가천대학교 석좌교수에 임용됐다. 손일근 석좌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일보 논설위원, 동경지사장, 출판국장, 백상기념관장, 상임고문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상임부회장, 국외소재문화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여영무 TV’ 개국



여영무(전 동아일보 논설위원)본회 논설위원= 지난 5월 1일자로 인터넷 신문 뉴스엔피플에 ‘여영무 TV’를 개국시켰다. 여영무 TV는 그 때 그 때 시사

성 있는 중요 사항을 해설하는 형식의 영상이 올려 진다. 첫 방송에선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여영무위원의 해설이 유튜브로 방영됐다.

서울문화사 사장 선임



이정식(전 CBS사장)회우= (주)서울문화사사장에 선임 돼 6월 2일 취임한다. 이 선임 사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CBS 워싱턴 특파원, 정치부장 등을 거쳐 2003-2009년 CBS 사장을 지냈다.

고 장만영 선생 탄신 백주년 문학제



장석훈(전 조선일보 편집국장)회우= 우리문학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고 장만영 선생(장석훈 회우 부친)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심포지엄(5월 8일·교보빌딩 23층 세미나실)과 문학의 밤 행사(5월 9일·연희문학창작촌 야외무대)를 가졌다.

최서면 국제한국학연구원장 초청강연



정구종(전 동아닷컴 대표·한일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회우= 지난 4월 4일 광화문스타워 지하1층 로스비앙코에서 한일포럼(대표 유명)과 공동주최로 최서면 국제한국학연구원장을 초청 ‘나의 한일 관계연구 50년을 회고하며 주제로 특강.

회훈례 등 근황 소개



최영정(전 한국신문인크 대표)회우= 스포츠 저널 4월호에 ‘부부 60년 해로의 회훈례’가 소개됐다. 지난 3월 1일자 ‘노년시대’에 회훈례 소식이 실린데 이어 스포츠 저널 4월호엔 ‘회훈례를 치르다’ 제하의 글을 실었다.

회원 단합대회



한영섭(한국방송인 동우회장)원로회우= 5월 29일 방송기자동우회 야유회를 갖고 춘천 소양강댐 등을 관람했다.

방일영재단 저술지원



황원갑(전 서울경제신문 문화부장)회우= 조선일보 방일영문화재단(이사장 조연홍)으로부터 ‘한국사를 바꾼 리더십’ 제하의 저술지원을 받았다.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이사진

본회 회우 다수 참여

사단법인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회장 이기수)는 지난 4월 30일 제재형 본회 고문을 상임이사에, 신우식 고문, 홍원기 명예회장, 김은구 회장, 이도형 신경식 자문역을 각각 이사로 위촉했다.

신입회우 환영합니다

가나다순

이준호(李俊浩)



1948년 8월 11일생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로 10번길 11 중앙하이츠빌리지 107-202 / 010-3794-1027
(약력) KBS 사회/외신/특집부 기자, 정치부차장, 문공부 홍보기획관,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LA문화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보좌관, 서울시교통방송 본부장(TBC 교통방송 대표), 서울여대언론영상학부 겸임교수(현)

조양진(趙陽鎭)



1943년 9월 2일생
경기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우림퓨전아파트 105동 1004호 010-3157-3792
(약력) 동아일보 출판국 여성동아부기자, 경향신문 정경문화월간경향 부장, 뉴스메이커 주간부국장, 편집국조사부장 심의위원, 월간 말 대표

한국영상자료원 창립 40주년 행사



한국영상자료원(원장 이병훈·본회 이사·사진)은 지난 5월 22일(목) 18시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OFA1관에서 창립4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개막행사에는 영상자료원 이사장과 원장을 역임한 신우식 고문, 정홍택회우가 참석, 축사를 하기도 했다. 한국영상자료원의 지난 40년을 돌아보고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8월 10일까지 계속된다. 기간 중

개막작 및 발굴 복원작 등 8개 섹션 53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한국영화와 함께한 한국영상자료원 40년 기획전시(5월 22일~8월 10일)를 비롯, ‘아카이브의 미래를 고민하다’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5월 23~24일)도 열렸다.

한국영상자료원은 2007년 한국영상자료원장 직속으로 한국영화사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발간 수준을 높이고 영화사연구 역량을 강화, 국내외 한국영화 연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추진해오고 있다. [4]

▶ 회우 경조사 ◀

결혼

▲ 송종문 회우= 6월 28일(토) 낮 12시 프리미어 웨딩홀 4층 그랜드 볼룸(구 상록회관 웨딩홀), 장남 결혼

부음

▲ 도준호 논설위원= 5월 15일 모친상,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괄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4년 4월 28일 부터 5월 27일까지)

고수균(14)	김철진(14)	이자현(14,15,16)	조양진(입회비)
김병무(12,13)	신동호34년생	이상우36년생	미상(조상범·3만원)
김종옥(9,10,11,12)	(15,16,17)	(12,13)	
김주철(12,13)	조규진(14)	이준호(입회비)	

15회 재외동포 언론인대회에 본회 김충한 부회장 200만원 협찬



김충한 본회 부회장(사진)은 지난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대한언론인회와 재외동포언론인협회(회장 이종국)가 공동주최한 제13회 해외동포언론인대회 협찬금으로 2백만을 보내왔다.

토요건강포럼 안내

일시: 2014.6.14(토) 오후 2시
장소: 이운수 비노기과
제목: ‘평생 병없이 건강하게 살려면’
연사: 조경복(카이로프랙틱 전문의·한국전신교합학회장)
간사: 이보길 010-4461-5657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金銀九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대외협력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열정 커피, 정성 우유, 사랑 시럽

‘나는 카페’ 커피는 맛이 좀 다릅니다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녹아 들어
더 깊고 진한 맛을 내는 커피.
커피 한 잔이 새로운 삶을 향해 발을 내딛는
발달장애청년들에게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꿈이 있다면 누구든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한국마사회가 전하겠습니다.

‘나는 카페’의 커피는 식어도 나눔은 식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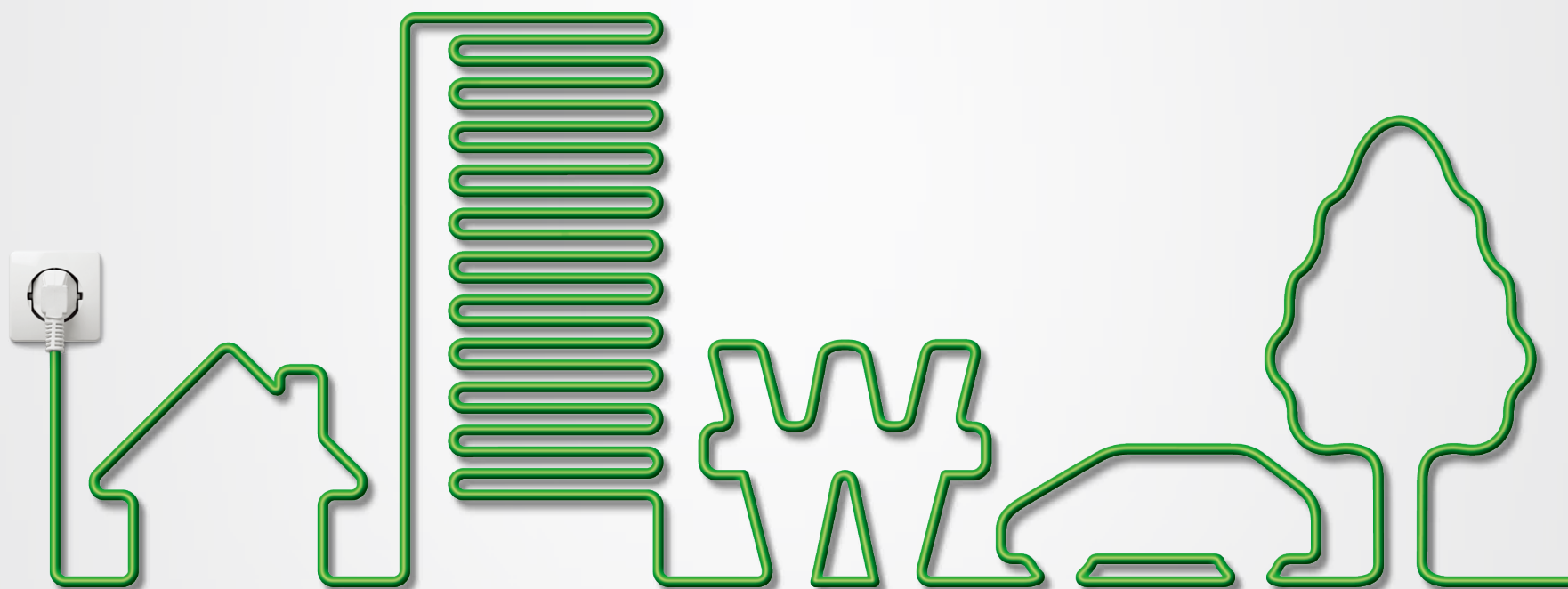


한국마사회 ‘나는 카페’는 꿈을 잡고(Job Go)프로젝트와
함께 바리스타를 꿈꾸는 발달장애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입니다.



www.kepco.co.kr

전기가 스마트해지면...



집이 스마트해지고, 빌딩이 스마트해지고,
자동차가 스마트해지고, 경제가 스마트해지고,
환경이 스마트해지고, 생활의 모든 것이 스마트해집니다.
전력망의 지능화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고품질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스마트 그리드 -
IT, 건설, 자동차, 전자, 소재, 에너지까지
서로 다른 산업 및 기술간의 융·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한국전력의 신성장동력입니다.

